

碩士學位論文

崔玄植 小說 研究

指導教授 金 永 和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京 宣

1998年 8月

崔玄植 小說 研究

指導教授 金 永 和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京 宣



金京宣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최현식 소설 연구

김 경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 영 화

이 연구는 최현식의 생애를 염두에 두면서 그의 문학이 어떤 변모양상을 거쳤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최현식의 문학이 가지는 특성 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현식은 성장기를 일제시대 때 보내 민족의 의미를 모른 채 일본 문화에 익숙해 지냈고 해방 후 민족에 대해 알아갈 무렵에는 6·25가 발발, 고향을 상실했다. 제주도에 정착한 후에도 강제해직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그의 굴곡진 삶들은 최현식의 문학적 특징을 이루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현식의 생애를 바탕으로 살펴 본 문학적 변모양상은 다음과 같다.

1956년 「노루」로 등단한 이후부터 1961년 제주도에 정착하기까지 발표된 그의 작품들은 서정적인 묘사와 순수주의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군 제대 후부터 사소설을 자신의 문학들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제주도에 정착한 이후 최현식의 소설세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또한 이 시기 그의 서정적 문체의 틀이 자리 잡혔을 뿐 아니라 군 제대 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사소설보다 심경소설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강제해직이라는 큰 아픔을 겪은 그는 실직의 충격에도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현식은 40년 가까이 제주도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만큼 제주도를 보는 시각도 현지인의 시각과 외지인의 시각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자연을 관찰, 서정적인 문체로 묘사하는 등 제주의 자연과 풍속에 동화된 新濟州

* 이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人的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방언 활용면에 있어서도 방언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자신의 신변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내는 사소설적 특수성과 그의 半濟州人으로서의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제주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4·3'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후에야 제주인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되는 등 濟州人化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소설들은 작가의 신변사와 자신의 사사로운 경험이 소재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소설에 가깝다. 하지만 사건으로 비롯되는 심경묘사에 치중하는 심경소설에 더 가깝다. 사소설을 위한 사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소설의 장점을 활용, 자신만의 독특한 소설세계를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최현식 소설의 또다른 특징은 서정성에 있다. 시적 분위기에 싸여있는 작가의 문체나 작품을 통해 보여지는 낭만적 감수성, 화해와 용서하는 자세, 낙관론 등은 그의 소설들이 서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目 次

<國文抄錄>

I. 서론	1
II. 문학관 형성과정	3
1. 함경남도 시절	3
2. 서울·피난·군대 시절	6
3. 제주 정착 이후	10
III. 문학적 변모 양상	12
1. 제1기(1956년~1961년)	12
1) 순수성·서정성에 대한 관심	12
2) 군대체험의 소설화	16
3) 사소설에의 관심과 문체의 변화	21
2. 제2기(1961년~1980년)	24
1) 낙향의 아쉬움	24
2) 망향과 실향의 아픔	27
3. 제3기(1980년 이후)	31
1) 실직의 충격과 관용	31
2) 老年의 상실감과 소외	33
3) 수필에의 접근	35
IV 소설의 특징	35
1. 제주를 보는 시각의 양면성	35
1) 자연환경과 풍속에의 同化	36
2) 방언의 수용	39
3) 제주개발에 대한 비판	41
4) '4·3'에 대한 인식	42
2. 사소설적 경향	44
1) 사소설과 심경소설	44
2) 한국에서의 사소설	46
3) 사소설의 수용	47
3. 서정성의 추구	49
V 결론	53



참고문헌	56
summary	57
* 崔玄植 年譜	



I. 서 론

이 연구는 崔玄植의 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그 변모 양상과 문학적 특성을 살피려는 목적으로 씌어진다.

1924년 咸鏡南道 洪原에서 출생한 최현식은 일제시대 때 고향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월남했다. 그 후 서울 생활과 군대 생활을 거쳐 1961년 제주도에 정착,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는 1956년의 「해바라기의 追憶」과 1957년의 「노루」로 문단에 들어선 이후 강제 퇴직 등 현실적 굴곡을 겪으며 자신의 체험과 일상을 작품에 담아오고 있다. 사소설(私小說)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단편소설이다. 작가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과 신변사가 그의 기질적인 서정성과 더불어 형상화됨으로써 독특한 소설세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역사주의 비평에서 볼 때 작가는 작품생성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 작가의 생애와 체험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최현식은 작가 자신의 삶과 그 체험이 소설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생애와 관련지어 작품을 고찰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최현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생존해 있는 작가라는 점, 그의 작품세계가 사소설적인 요소가 많아 이른바 문체성을 띤 작품이 별로 없다는 점, 寡作의 작가라는 점, 지방에서 활동하는 문인이라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그가 70대 중반의 고령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작품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므로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최현식은 함경남도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성장기를 보내고 30대 후반 제주도에 정착, 40년 가까운 기간을 살아오고 있는 제주도 入島 1世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0년대에 등단한 작가이면서 월남한 실향민이라는 점, 특히 제주도에 정착한 문인이라는 점은 그의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越南人の 의식세계, 제주도에 정착한 외지인의 세계, 지방민으로서의 시각 등을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대상이라는 점도 연구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최현식 문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실향민 의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둘째는 작품이 지니는 서정성과 反散文性 등에 관한 것이다.

김영화¹⁾는 최현식을 ‘半濟州人’, ‘新濟州人’으로 명명하고 있다. 제주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제주에서 오랫동안 제주 문화나 풍토의 세례를 받았기에 濟州人化된 ‘新濟州人’이면서도, 작가의 의식 속에는 제주도가 타향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기 때문에 ‘半濟州人’의 숙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최현식 소설에 방향 또는 실향의 아픔이 강렬하게 드러나 있으며 자연미와 性의 발견을 작품화한다는 점에서 이효석의 문학과, 생활주변을 소재화하고 이를 수필적 접근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점에서 계몽문의 문학과 닮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송상일²⁾은 사회성 대신 탐미적이고 조직적 상상력을 동원하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시적인 최현식의 소설들은 인식 방법에 있어서 非散文的이며, 자기분석의 不在로 말미암아 산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권이두³⁾는 작자 자신의 삶의 체험이 최현식 문학의 主調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서 망향의 아픔이 그의 격조 높은 수필적 토운과 만나면서 오히려 짙은 서정시적 분위기를 빚어낸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은 최현식의 작품세계에 대해 나름대로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의 문학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가 최현식의 문학을 종합적·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 분석이거나 短評·작품해설 등 단편적 고찰에 머무르고 있어 최현식 문학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현식의 작품세계를 작가의 생애와 연관시키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의 문학적 변모 양상을 살피는 한편, 그의 작품이 지니는 문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紅裳』(1973), 『黑猫日記』(1984), 『먼 산』(1994) 등 최현식의 단편 소설집 3권에 수록된 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세 권의 소설집에 실린 작품은 「해바라기의 追憶」, 「노루」, 「435 OP의 家族」, 「폐지와 SMG」, 「花子時節」, 「안개 속에」, 「夾竹挑」, 「娘郷」, 「紅裳」, 「거울 소나기」, 「두 낚싯군」, 「望郷三題」, 「샬비어」, 「菊花배개」, 「꽃履歷」, 「賞蘭抄」, 「먼 산」, 「黑猫日記」, 「돌넝」, 「어떤 山行」, 「清進洞귀뚜라미」, 「오늘의 椅子」, 「용내風景」, 「故郷」, 「아버지의 여름」, 「고동색 리본」, 「그날의 달빛은」, 「봉선화」, 「어떤 피서」, 「紅花里에서」 등 모두 30편이다.

- 1) 김영화, 「望郷 혹은 失郷의 아픔」, 『현대작가론』(도서출판 문장, 1983), pp.220~234. 「최현식」,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화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pp.249~256.
- 2) 송상일, 「未分の <私>의식—崔玄植」, 『時代와 삶』(도서출판 문장, 1979), pp.169~172.
- 3) 권이두, 「오늘의 삶 속에 투영된 失郷의 아픔」, 『黑猫日記』(創元社, 1985), pp.311~314.

II. 문학관 형성 과정

1. 함경남도 시절

최현식의 생애와 문학관 형성 과정 등은 자신의 삶과 문학에 대해 고백한 글 「민들레의 뜰」⁴⁾과 작가 후기, 자전적 성격의 작품들, 그리고 그의 증언⁵⁾ 등을 토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최현식은 1924년⁶⁾ 음력 11월 28일 咸鏡南道 洪原邑 南塘里 7번지에서 태어났다. 흥원은 바다를 낀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관북팔경(關北八景)으로 널리 알려진 송도를 비롯하여 와도·죽도 등의 섬들이 근처에 있고, 다른 지방 순회공연에서의 결순을 관북공연으로 보충할 정도로 예술에 관한 관북인들의 관심도 강했던 지역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의 감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스스로 “나의 예술 수업은 그 나무의 꽃그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싹튼 것”⁷⁾이라며 자신의 예술적 감성은 자연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한다. 자연과 친숙했던 성장과정을 보내며 그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는 순수의 세계를 지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열 살이 되던 1933년에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일제시대 때 성장기를 보낸 셈이다. 그의 성장기라 할 수 있는 1930년대 중반부터 광복되기 전까지는 일제의 폭압이 그 극에 달한 시기였다. 한글사용이 금지되고 창씨개명이 강제시행되는 등 한국인의 정신과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때였다.

한글 사용이 금지된 학교에서 그는 우리 글과 말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일본어가 한글보다 더 익숙했다. “일본고 역사, 일본 문학에 능통하다.”⁸⁾는 작가의 고백처럼 일본문화에 길들여져 가는 반면, 우리 역사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를 그는 「민들레의 뜰」에서 다음과 같이 털어놓는다.

해방 전에도 문학에 뜻을 품고 있었다. 하이네의 시(일본글로 된)를 모방한 시도 써 보며 문학도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방을 맞고 보니 모국어(를 모르는) 한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해방 전에 읽은 우리 문학서는 강소천의 동요집 <호박꽃초롱>과 이태준의 <제2의 운명> 두 권뿐이었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으로 우리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실은 보통학교 6학년 졸업 때까지 배운 <조선어>였지만, 일주

4) 최현식, 「민들레의 뜰」, 『제주문학』 23집(제주도문인협회, 1993), pp.25~58.

5) 필자는 1998년 2월 4일과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최현식으로부터 그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6) 최현식의 출생연도는 호적에는 1925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24년이라고 한다. 그의 생년월일은 「민들레의 뜰」(p.26)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7) 최현식, 「꽃履歷」, 『黑猫日記』(創元社, 1985), p.68.

8) 최현식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일에 한시간 수업밖에 할당돼 있지 않았다. 이런 <조선어>시간에 신바람이 날 리가 없었다. 설마? 하는 편견이 될지 모르지만, 민족(民族)은 알아도 <겨레>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 불행은 토국어뿐이 아니었다. 상해의 우리 임시정부,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이름을 들어 본 일도 없었다.⁹⁾

그의 소설들이 일본의 私小説에 맥이 닿아있는 것도 일본문화에 더 친숙했다는, 이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현식의 가족 중에는 당시로서는 인텔리에 속하는 지식인이 많았다. 동경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대표자 중 한사람이었던 최팔용이 그의 재증조부였고 셋째 백부는 캐나다 유학을 했다. 또 숙부는 해방 후 반공에 앞장섰던 인물로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¹⁰⁾ 이들을 통해 최현식은 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서가에서 일본어로 씌어진 책들을 섭렵하며 문학적 자양분을 섭취해갔던 것이다. 일본문화에 익숙해 있던 성장기의 최현식에게 그들은 우리말과 민족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백부는 그 험췌히 메마른 얼굴에다 애조의 미소를 띠우면서 맞아주었다. 그리고 이내 「성적은…」 하고, 물었다.

「보통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어보이면서 작사라의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우리 글을 열심히 공부해두는 것이 좋을 거야.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오고 말테니까……」 백부는 툭툭한 음성으로 타일러주었다

나는 일본글로 읽은 「타골」이 어떻고 「하이네」가 어떻고 하면서 알팍한 지식의 바다를 털어보았다. 백부는 시종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받아주면서, 이번 방화에는 잊지 말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어두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¹¹⁾

셋째백부의 이야기를 토대로 창작한 작품 「해바라기의 追憶」의 일부분이다.¹²⁾ 작품 속의 '나'(최현식)에게 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한용운의 「님의 沈黙」을 읽게 함으로써 백부는 문학작품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어로 씌어진 작품을 읽고 있던 최현식에게 3·1운동 지도자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한용운의 작품을 읽게 함으로써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려 했던 의도도 읽을 수 있다. 특히 우리 글을 열심히 공부하라며, 반드시 우리 글을 자유자재로 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백부가 최현식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 최현식, 「민들레의 뜰」, 위의 책, p.44.
10) 최현식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11) 최현식, 「해바라기의 追憶」, 『紅裳』(현대문학사, 1973), pp.24~25.
12) 작품 속에 묘사되는 백부와 작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이라는 것이 작가의 증언이다 (1998년 2월 4일).

작품 「紅裳」속 숙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¹³⁾ 작가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고향 숙부댁에는 책이 많았다. 그 서가 곁에서 나는 소년 때 한 시절을 살다시피 했다. 하이네, 바이론 따위, 일본글로 된 책들을 품고 열심히 읽고 있노라면, 숙부는 우리나라 글을 익히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고 타일러주곤 했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호박꽃초롱」이었다. 뒤이어 「다정불심」, 「사랑」 따위. 그리고 소월도 알게 되었다. 숙부의 사랑은 이렇듯 우리글에 눈을 뜨게 해준 일뿐이 아니었다. 좋은 영화라고 하면서 극장에도 데려다주곤 했었다. 회랍의 신화 이야기였을 것이다. 천상(天上)에서 자옥한 안개 속에 움직이던 영상들은 쥘피터, 비너스, 아폴로의 제신(諸神)들이었을 것이다.¹⁴⁾

「해바라기의 追憶」에 주인공으로 설정되는 백부는 작가에게는 셋째 백부다. 3·1운동 직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던 이 백부가 돌아오면 몰락해가는 가세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어린 최현식을 비롯한 집안 식구들은 믿는다.

그에 따르면 일곱 살 때 귀국한 백부는 국내의 현실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기독교계의 직장을 옮겨다니지만 사상이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다. 이후 백부는 가족들이 보기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사랑방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때 어린 최현식은 백부와 함께 생활한다.

백부는 애국심이 강하고 심지가 끈은 것으로 그의 작품을 통해 묘사된다. 일본어로 된 문학작품을 열심히 읽는 최현식에게 우리말 익히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월남 후 관재청장 통역관으로 취직해 있을 때도 사리사욕 취하기를 거부하고 신념대로 소신껏 살기를 주장한다. 당시 영어에 능통하고 통역관으로 있었다면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셈이었다. 마음만 먹는다면 손쉽게 적산가옥 등 재산을 확보하거나 이권에 개입, 권력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백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소신껏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다. 이는 백부에 대한 최현식의 기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형님, 그 혼해 빠진 적산가옥 하나 차지해 봅시다.」 당숙이 간청하는 말이었다.

(실제, 관재청장 통역관 시절의 백부는 몇 사람의 뒤를 밀어주고 있었다. 앞의 H씨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백부의 응답이다. —우리들 때문에 남들이 손해를 봐서야… 그런 결벽성에 당숙은 말문을 잃고 마는 것이다.¹⁵⁾

13) 「紅裳」에서 묘사되는 숙부와의 일들도 사실이라는 것이 작가의 증언이다(1998년 2월 4일).

14) 최현식, 「紅裳」, 앞의 책, pp.219~220.

15) 최현식, 「민들레의 뜰」, 앞의 책, p.32.

백부의 이러한 결벽성은 은연중에 최현식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작가의 의식 또한 소신껏 정도를 걸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2. 서울 · 피난 · 군대 시절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오랜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게 된다. 하지만 이 해방의 의미는 남북분단이란 민족사적 비극을 동반한 것이었다. 분단상황은 작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해방 직후 최현식의 고향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기 시작한다. 이때만 해도 해방의 기쁨 속에 자유를 만끽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었지 누구도 조국의 분단을 예측하지 못했다. 최현식은 캐나다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백부와 함께 越南을 계획한다. 그의 월남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잠깐 다녀오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잠시 공부를 위해 서울에 간다는 생각이었다.

8·15광복—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왔다.

그해 추석날이었다. 친척들이 어울려 남사평(고을의 남쪽 바닷가의 백사장. 공동묘지가 있었다)에서 성묘를 하고, 장손인 사촌형집에 모여 음복을 하게 되었다.

캐나다백부가 제일 연장이었던 음복석에는 당숙들 등 권속 7·8명이 모여 있었다.

좌석에서의 화제는 38선을 놓고 미·소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토론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연일 소련의 야크기(전투기)편대가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 무렵만 하더라도 조국의 분단은 아무도 예측 못한 일이었다.)

그 음복석에서였다. 백부가 서울(미군이 들어와 있는)에 가겠다는 말을 꺼냈다.

「언제 떠나시렵니까?」 내가 물은 말이었다. 「내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보려므나…….」 쉽게 허락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추석 다음날 고향을 떠났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고을에서 극장을 경영하고 있던 H씨가 백부의 <영어>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행을 권유했다는 것이다.)¹⁶⁾

공부를 하려는 욕심에서 서울로 향했다는 최현식의 말처럼 그의 서울행은 우연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다시는 고향땅을 밟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향은 작가에게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고 이후 그의 문학의 큰 주제가 된다.

월남 후 최현식은 5촌 당숙의 집에서 기거하다 월남한 선후배들이 한데 어울려 자취를

16) 최현식, 위의 책, p.30.

하던 성북동으로 옮긴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시작하지만 일본어에 익숙해 있던 그는 한글 구사 능력의 부족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1946년에서 47년에 거친 2년여 동안 각종 책 등을 통해 한글과 역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일본어로 섭렵했던 문학수업을 다시 시작한 셈이다. “일본사람으로 살아오다 다시 태어난 것과는 같았다”¹⁷⁾는 작가의 고백대로 이 시기 최현식은 비로소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의식을 새로 형성해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무렵 작가가 절실하게 느꼈다는 모국어 구사 능력의 부족은 그로 하여금 작품을 써오는 동안 언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한다. 그의 문체가 비산문적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서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사실은 이런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1945년의 해방에서 1950년의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은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문학잡지들이 속출하는 등 문학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었다. 이와 함께 남북분단이란 민족사적 비극이 동반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이 격렬했었다.

이러한 상황에 최현식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¹⁸⁾ 하지만 전쟁 발발 후 작가에게 이데올로기는 외면의 대상이 된다. 그에게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고향을 잃은 것도, 친구들을 잃게 된 것도 다 전쟁 탓이라고 생각한 것이다.¹⁹⁾ 이러한 이유로 작가에게는 늘 공허감이 도사려 있게 되고 작품을 통해 표출되는 그의 의식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순수의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해방 이후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단에서 한동안 보여졌던 이데올로기 회피현상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문학은 해방 이후 6·25전쟁을 거쳐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분단체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6·25전쟁으로 인한 민족의식의 분열과 대립이 분단의 고정화를 촉진시키는 동안, 문학은 개인 의식의 위축과 피해를 감추기 위해 이념으로부터 도피한다.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식의 분열과 훼손이 분단의 고정화를 의식화하도록 만든다. 이른바 분단논리가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추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된 것도 이 무렵이다. 삶의 터전의 황폐화, 정치의 혼란, 역사에 대한 전망의 부재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문학은 분단문제와 연관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문제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의 위축과 피해를 감추기 위해 이데올로기로부터 도피를 시작한 것이다. 일체의 이념적 경향을 외면한 채 문학의 순수를 강조하기도 하고, 현실의 불모성과 삶의 고통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공간 속에서 개인의 실존을 운위하기도 한다. 전쟁의 상황은 이데올로기의 실체와 그 대립 과정에 대한 규명을 덮어둔 채, 휴머니즘의 정신만을 내세우는 허황된 논리에 의해 개인 의식의 내면으로 유폐되고, 전후의 혼란된 사회상은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한 깊이있는 인식 대신에 세태 묘사에 그치는 풍속적 차원으로 전락하고 만다.²⁰⁾

17)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18)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3월 28일.

19)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이러한 당시의 문단상황은 문학의 순수성을 지향하던 최현식의 의식세계와 어느 정도 일치됐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그 표출에서 멀찍이 물러나 있는 그의 작품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때문에 손창섭, 장용학 등 동시대 작가들이 전쟁의 재난에 직면함으로써 겪은 비인간적인 전쟁에의 반응과 피해의식, 갈등 등을 작품으로 써가던 경향과는 다른 문학세계를 그는 구축해갔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혐오감은 작가의 어머니에게서도 비롯된다.

어머니는 좌경한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겼다.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어머니. 실은 어머니의 형제(어머니는 장녀다. 3남 2녀의) 중 몇 사람은 북쪽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둘째 외숙은 일제 때 옥고까지 겪었던 사회주의자였고, 이모네 오누이는 평양의 만경화교(이른바 혁명가의 유자녀만 입교하게 된다는)에 다니고 있었다.

어머니의 반(反)공산주의는 사상이 아니고, 체험을 통한 단순한 논리였다.

…하루종일 뻘뻘하게 일(배급쌀을 타자면 방축공사장 같은 노동에 나가야 하는)을 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 밥순가락을 놓기가 바쁘게 동소(마을회관)에 모이라는 호통질이니…졸려서 죽을 지경인데, 학습은 무슨 개나발같은…

<밥순가락>과 <개나발 같은> 대목에서 유난히 힘을 주는 말이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 가질 시간도 좀 있어야지비….

<지비>의 사투리로 말끝을 맺는다.

어머니의 말씀 중의 <자기 생각 가질 시간>은 뭘 뜻하는 것일까. <자유>일 게라는 해석이며, 그후 살아오는 동안 되새겨보곤 했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다.

자유—잊히지 않는 어머니의 말씀 한 가지가 더 있다.

20여년 전, 지금의 삼도동 우리집에서였다.

…「그만해왔으면 치우지비!」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의 말이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어 3년 쯤 지났을까. 텔레비전은 연말의 <새마을대회> 실황 중계를 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곁에서 같이 화면을 지켜보고 있던 내가 이렇게 의아해 하는 미소를 지어보였더니,

「무슨 운동이든 오래 가면 좋지 않다는 이야깁매.」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어떤 운동이든 오래가면…그 점 새마을 운동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북쪽에서의 <개나발 같은 학습> 남쪽의 <새마을 운동> … 어머니는 사람이 많이 모여 떠들어대는 (획일주의를 위한) 장소를 싫어했던 모양인데 이런 혐오감은 나도 같다는 생각인 것이다.²¹⁾

20) 권영민, 「소설 『태백산맥』, 6·25전쟁, 그리고 분단문학」, 『태백산맥 다시 읽기』(해냄출판사, 1996), pp.236~237.

21) 최현식, 「민들레의 딸」, 앞의 책, pp.45~47.

위에서 밝힌 것처럼 최현식은 이념을 싫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유주의를 표방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함을 보인다. 이를 두고 작가 자신은 “이데올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흑백논리 자체가 싫다. 모호함은 나의 천성”²²⁾이라는 고백으로 풀이한다. 문학이 이념을 가지게 되면 문학이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작품을 통해서도 민감한 감성으로 옳고 그름을 파악할 뿐 목소리 높여 강하게 주장하거나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작가의 문학관은 그의 작품 「봉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괴테와의 대화」에 나오는 ‘감성론’을 덧붙여 피력했다.

…대작으로 일관된 이념에 따라 썼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것은 친화력(親和力)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 이념 때문에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문학작품은 약분할 수 없고, 오성(悟性)으로 파악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의 비약이라고 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가는 자기가 쓴 작품의 의미마저 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확정되면 문학은 끝나 버린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²³⁾

국민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던 최현식은 6·25전쟁 전 해인 1949년에는 월간 『三千里』 기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 시기 그는 춘원 이광수, 김동리 등 당시 유명 문인들을 자주 접했고 그 중 김동리의 문학에 심취한다.

그러나 기자생활 1년만에 그는 전쟁 속에 휩쓸리게 되고 1951년 1·4후퇴로 제주도 에월에 피난 온다. 이때 지금의 부인을 만나 군복무 중 혼인을 하게 된다. 피난기간 동안 그는 역시 제주도에 피난 중이던 소설가 계용복을 만나게 된다. 당시 제주도에 피난 온 문인들이 꽤 있었고 이들로 인해 문학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최현식은 계용복 주재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신문화』 편집을 도우며 본격적으로 창작에 나선다. 이때 그는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시를 썼다. 『신문화』에 「5월의 望樓」를, 『제주신보』에는 「頭毛에서」를 발표했다. 또 이 무렵 제주도 문인들의 모임이었던 ‘黑珊瑚’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때 최현식이 익힌 詩的 감각은 이후 소설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그의 낭만적 감수성과 어울려 특유의 비산문적인 서정적 문체를 형성하게 된다.

29세가 되던 1953년 6월, 모슬포의 대정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지 『山房』 창간호의 편집을 맡고 있을 무렵 육군에 입대한 그는 모슬포 훈련소, 육군 보병학교·포

22)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23) 최현식, 「봉선화」, 『먼 산』(正宇社, 1994), pp.161~162.

병학교를 거쳐 이듬해 4월 소위로 임관한다. 휴전선 부근 史倉里에서 창설중이던 28사단에 배속된 후 한탄강·임진강 일대에서 4년간 군 생활을 한다.

1958년 육군 중위로 전역한 최현식은 제주도에 정착하기까지 3년여를 뚜렷한 직장 없이 작품을 발표하며 생활하지만, 서울생활은 그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군 복무 중 혼인한 그에게는 뚜렷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생활이 필요했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밀창이 빠져 허둥거리는’²⁴⁾ 생활만 계속된다. 또 그가 제대한 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4·19, 5·16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였고 문인들 역시 시대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현식은 이런 민감한 반응에서 멀찌감치 비켜서서 여전히 관조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흑백논리를 싫어하고 이데올로기에 혐오감을 가지는 작가의 의식에서 비롯된 태도였다.

그러다가 최현식은 제주도로의 落鄉을 결심하게 된다.

3. 제주 정착 이후

1961년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최현식은 38세였다. 그가 제주도에 정착한 주된 이유는 아내가 제주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뚜렷한 직장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족들이 떨어져 살아야 했던 서울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직장이 있고 가족과 모여 살게 된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훨씬 안정감이 있었다. 게다가 도시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던 그에게 제주도는 그의 문학적 감성을 마음껏 풀어놓기에도 알맞은 곳이었다.

“난 본래 생존경쟁이 싫어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서울에서의 아귀다툼이 천성적으로 나에게서 맞지 않았지요. 도시생활 자체가 나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제주도로의 낙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의 낙향은 아내의 고향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긴 했지만 도시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큰 유혹이었어요.”²⁵⁾

최현식의 작품에 서정적 색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은 제주에 정착하고 나서부터이다. 그는 제주도의 자연풍경을 詩적으로 묘사해 수필적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전에 시도했던 감성을 앞세워 보려는 문체변화가 산문의 경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때다. 자신의 문학적 틀을 확고하게 자리잡게 한 셈이다.

한 동안 제주도 공보실에서 『제주도』誌를 편집하는 일을 맡아 하던 그는 1965년 제주신문사에 입사했고 그후 편집국장직을 14년 동안 맡다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강제해직 당한다. 제주도 정착 후 자신의 활동 기반으로 삼아오던 직장을 잃은 최현식으로서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실직으로 그는 경제적인 어려

24) 최현식, 「안개 속에」, 『紅蓑』(현대문학사, 1973), p.143.

25)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움에 맞닥뜨리게 되고 문학적 고비를 맞는다.

실직 후 그는 간간이 단편들을 발표할 뿐 활발한 창작활동을 펴지는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료 위주의 글들을 많이 쓰게 되면서 글쓰기에 대한 매력을 상실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작가가 밝히는 이유다. 이후 발표된 작품들은 회고적인 경향이 더욱 짙어질 뿐만 아니라 수필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실제로 그는 최근들어 수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소설은 즉흥적이어서는 안되죠. 순문학에 대한 독자가 없어져가는 시대 상황과 기력이 약해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갈수록 소설보다 수필에 애착이 더 가요”²⁶⁾

순수의 세계를 지향하고 詩的 산문으로 작품을 써가던 최현식의 소설세계는 이처럼 실직 후 수필에 더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6.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Ⅲ. 문학적 변모 양상

1. 제1기(1956년~1961년)

1) 순수성·서정성에 대한 관심

최현식은 6·25가 발발한 3년 뒤인 1953년 육군 소위로 임관, 4년여의 군 생활을 했다. 군 복무 중이던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해바라기의 추억」이 당선작 없는佳作로 입선된 데 이어 1957년 같은 지면인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단편 「노루」가 당선, 등단하게 된다. 이 두 작품 외에는 군 복무 중 발표한 작품이 없다. 이 두 작품 모두 서정적인 필체로 잔잔하게 그려져 있다. 동년배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는 어둡고 병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흔적조차 느낄 수 없다. 또 이때만 해도 그의 작품 전체에 짙게 흐르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실향의 아픔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송상일의 평처럼 그는 ‘차분한 人情의 수채화’²⁷⁾를 그리고 있을 뿐이다.

「해바라기의 追憶」은 최현식에게 문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셋째 백부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백부는 캐나다 유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목장에서 인도 혼혈인인 로오즈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 하지만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백부는 로오즈를 돌봐줄 수 없었다. 로오즈는 강압적인 목장동료 존의 구혼, 생활고 등 여러 시련을 거치면서도 백부의 사랑을 기다리다 죽는다. 로오즈의 죽음 이후 백부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학위를 포기하고 귀국한다. 백부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리던 고국의 가족들은 곧 기울어 가는 가문을 백부가 되살려 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백부가 돌아온 고국은 이미 주권을 상실한, 일제치하의 땅이었다. 이곳에서 백부는 적응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과 상실감에 시달린다. 가족들의 눈에는 백부가 정신이상자로 보인다. 하지만 어린 나에게 백부는 옛날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고 바다에 나가 잠수를 하는 등 잘 어울려준다.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해바라기에 얽힌 전설이다.

...옛적에 크라이티라는 물의 요정이 있었다. 크라이티는 아폴로(太陽神)를 사모했다. 그러나 아폴로는 크라이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크라이티는 짝사랑에 애태우다 못해 마침내는 미치다시피 되었다. 그리하여 어깨 위에다가 머리카락을 헤뜨린 채 진종일 땅바닥에 들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흐렛 동안을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울

27) 송상일, 「未分の <私>의식—崔玄植」, 앞의 책, p.169.

고만 있었다. —자기의 눈물과 그리고 새벽마다 내리는 찬 이슬만으로 입술을 적시면서, 저 태양(아폴로)이 솟으면, 그것이 자기의 머리 위를 지나서 서산너머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편단심 오직 님을 지켰다. 그러는 동안에 다리는 땅바닥에 늘어붙어 뿌리를 박았고, 얼굴은 굳어서 한 송이의 꽃으로 화했다. 그 꽃이 바로 해바라기다.²⁸⁾

이러한 해바라기의 向日性은 작품 속에서 백부의 신념과도 동일시 된다.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상실감에 시달리지만 대신에 백부는 “「상실했어. 모든 것을… 오직 이것이 나의 사랑의 전부야.」”²⁹⁾라며 新製鹽法을 개발, 상실한 조국을 나름대로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해방 후 백부의 정신이상은 회복된다. 주권을 되찾은 후 상실감에서 벗어난 것이다. 유학시절에 익힌 영어로 백부는 통역관이 된다.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인데도 백부는 「우리 삼천만의 전부가 니나 할 것 없이 적산집 하나를 놓고 혈안이 된다면 무슨 꼴이 될 것인가…」라며 여전히 부국론에 매달린다. 마지막 순간까지 님을 지킨 크라이티처럼 백부 또한 마지막까지 부국론에 매달리다 숨을 거둔다.

「해바라기의 追憶」은 작가와 백부 사이에 있었던 실화가 작품의 모티프가 되어있고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작품으로 그의 처녀작이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백부의 사랑은 낭만적이다. 해바라기의 항일성에 빚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여인에 대한 못다한 사랑으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것은 작가의 순수하고 서정적인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최현식은 이처럼 당대 전후파들이 전쟁체험을 소설화하던 경향에 반해 문학의 순수성과 서정성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식은 그의 문학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소설이나 심경소설적 형식을 처음부터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이지만, 작가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을 고백의 형태로 가차없이 폭로하는 것이란 사소설이나 작가의 심경에 보다 많은 흥미가 있는 심경소설에서 훨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최현식은 처음부터 일본의 사소설을 염두에 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동년배 작가들이 전쟁의 후유증을 놓고 소설을 쓸 때 그는 시대적 상황과 아픔에 직면하는 대신 문학의 순수성을 염두에 두고 서정적인 필체로 작품을 써왔던 것이다. 이런 그의 의식은 「노루」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작품은 전쟁이 끝난 후의 병영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당시 휴전은 되었지만 군대 내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작품 속의 병영은 전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평온하다. 다만 작품 속 대화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哲 일동병은 權 중사, 尹 하사와 함께 영국부대가 물러간 뒤 그들이 사용하던 비행장의

28) 최현식, 「해바라기의 追憶」, 앞의 책, p.16.

29) 최현식, 위의 책, p.40.

경비를 맡고 있다. 짬 일등병은 조용히 독서도 할겸 포대 인사계에 부탁해서 이곳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어느날 짬 일등병은 노루새끼 한 마리를 잡게 된다. 병영 속 세 사람은 노루새끼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매일 의논한다. 전장 경험이 있는 權 중사는 노루 피에, 전후세대인 尹 하사와 짬 일등병은 노루를 키우는 일과 새끼를 잃은 어미 노루의 슬픔에 각각 관심을 보인다.

「노론 영물이라대. 잘못 건드리면 죄를 받는데…」

尹은 아무 전후 관련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무슨 긍정을 얻자는 투다. 이내 부정을 당했다.

權이 씩 웃더니,

「돼지치 못한 소리 말어! 죄받아? 임마, 울 마을의 박포수는 노다지 노루만을 쫓아 다니면서 팍팍 썩 팽개쳐도 돈벌구 오래만 살더라. 제에길 죄? 사람을 잡으면 큰일나겠다. 이거, 전쟁 못해본 소리 자악작 지절여!」

하고 대단한 기세로 썼다. 그리고는 다붙여 저 퀘셋 안에 들어있는 놈도 어지간히 피가 오르면 잡아서 피(뜨끈뜨끈할 적에) 한 파칼(반합 뚜껑)씩 나누고 보자 했다.

이 말에 尹은 대뜸 반발했다.

「차마 그럴 수야! 누구한테 팔아서 술이라도 한잔씩 나누다면 몰라두요…」

「누가 산대? 이런 시골에서…」

「서울로 들고 나가지요.」

「누게가?」

「제가요. 자신있어요.」

「개수작 말고 내 하란대루 해. 임마 인사계장님이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어? 왜 내 말이 말갈지 않나?」

상겅기 짝이 없는 대결이었다. 둘이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밤에 처음보는 대결이 아니다. 이렇게 한가히 모여앉은 시간이면 으레 있게 마련인 대결이었다.³⁰⁾

權 중사는 같은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피를 흘려야만 했던 전쟁의 비극을 막 겪은 세대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체험했을 그에게 노루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기 보다 영험한 약효를 지닌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尹 하사와 짬 일등병의 경우는 생명을 지닌 존재로 노루를 인식하고 있다. 어미를 그리워하는 노루새끼에 연민을 느끼고 영물이라는 노루를 죽였다가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 존중’이나 ‘동물 애호’의 의식에서 노루를 보호하고는 있지 않다. 노루 새끼의 미래에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노루 새끼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인식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게다가 걸음이나 제대로 걷기 시작하면 함께 강변을 소요하리라던 막연한 서정까지 느낀다.

30) 최현식, 「노루」, 위의 책, pp.47~48.

(너 저 새끼녀석을 키워서 정작 어떻게 할 작정인가? 목적을 말해보란 말이야.)

따지고보면 대답하기가 지극히 난처하다. 강아지 새끼라면 장차 도둑을 찾아준다는 덕이나마 바라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전혀 무용지물에 틀림없는 물건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이 외부의 것과 교섭한다는 일을 놓고 이렇듯 공리적으로만 따질 수 없지 않을까. 다시말하면 우리들이 어떤 때에 저 오랑캐꽃빛으로 펼쳐가는 노을과 마주앉아서 한줄기의 추억에 사로잡히듯이 혹은 한포기의 화초를 가꾸듯이 결코 그런 일들로서의 시간을 허비로 칠 수 없다는... 이것이 노루새끼를 대할 적의 심정의 한 부분이었다.³¹⁾

노루를 키우는 일에 대해 반드시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존재 자체로 인식하고 싶어하는 의식의 반영이다. 하지만 일은 엉뚱하게 흘러간다. 우연히 포대 인사제가 노루 새끼를 보고 포대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포대장 역시 노루 피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짬 일등병에게 노루 새끼를 이용해 어미 노루를 생포하도록 명령한다. 또다시 짬 일등병의 갈등이 시작된다.

짬은 품의 것을 발두덩에 내려놓는다.

「이눔아, 가라. 가! 어서 네 어미 품을 찾아서 가란 말이야.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 전에 어서! 오늘 밤에는 야단이 날지도 모른다니까. 내가 아무리 방해를 놓더라도 權 중사 총부리에 그만... 이눔아 가라니깐! 소나기가 쏟아지기전에...」

짬은 마음 속으로 이런 소리를 외친다.

<중략>

짬은 다시 가슴 속의 불꽃을 헤아린다. —하키야 포대장님의 생각이 묘안에 틀림없다. 생포(生捕)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연발사격에 때려 눕힌다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리 만무다. 또 어미녀석은 어쩔 수 없는 욕망으로 하여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들 게다. 사실이다. 그것은 그놈의 피가 산삼(山蔘)이상 간다는 사실, 또 고기는 고기대로. 그리고 전 포대원의 회식. 이 사실들보다는 훨씬 더 에누리 없는 사실일게다. 자신이 붙는다. 오십야아드의 거리를 놓고 팡팡! 어미만이 픽 쓰러진다. 전화를 건다. 뜨근뜨근한 피, 그리고 이내 탁주와 고깃점과 그래서 얼큰히들 취기가 오르면 <노들강변> <진도아리랑> <지화자> 노래가 파도처럼 부풀어오를 것이다. 이 모두가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나 말이다.³²⁾

노루 새끼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포대장의 의도에 동의하는 짬 일등병의 모습은 모호한 것이 천성이라는 작가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개인 의식의 부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얼떨결에 쏘아 죽인 새끼노루에 매달려 피를 빨아 마시는 權 중사의 뒷모습을 담은 소설의 말미에서 작가는 짬 일등병으로 하여금

31. 최현식, 위의 책, p.49.

32. 최현식, 위의 책, pp.53~54.

“미련한 것들”이라는 복수형의 외침을 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죽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미련한 욕망을 냉소적으로 비웃는다.

전장 경험으로 생명에 대해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진 세대들의 황폐함과 피를 체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간의 현실 인식차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작품은 이들 세대들간의 현실 인식차이를 강하게 느낄 수는 없다. “『노루』를 발표할 때 4번이나 수정할 정도로 당시 군생활 묘사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다.”³³⁾는 작가의 설명이지만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처럼 분명한 작가의 의식을 보이기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처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픔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서 한발자국 멀찍이 벗어나 관조해 버리거나 빗대어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 시기 최현식은 주어진 시대의 현실에 직접 작가적 시선을 두어야 하는 소설의 기능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문학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서정성과 순수성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2) 군대체험의 소설화

1958년 육군중위로 제대한 최현식은 1961년 제주도에 정착하기까지 「435 OP의 가족」(『現代文學』), 「花子時節」(『文學』), 「돼지와 SMG」(『새벽』) 등 단편소설을 발표하는 한편 『전남일보』에 중편 「노을 무렵의 嘔吐」를 연재한다.

제대 후 최현식은 군생활 체험을 소설화하는 한편 다소 직접적인 어조로 군생활을 비판한다.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규율을 강조하는 군생활은 최현식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군복무 중 발표했던 단편 「노루」에 비해 군생활에 대한 비판적인 묘사가 많다.

50년대 소설은 ‘전후소설’이라 일컬어질 만큼 전쟁의 재난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이러한 전후소설들은 전쟁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 개인과 전우와의 관계, 상관과 부하, 아군과 적군 등 개인과 조직집단 간의 연대나 어긋남 등을 작품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항상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편재되어 있는 전장에서 죽거나 상처를 입는 주역은 군인들이다. 따라서 전시나 전쟁 직후의 전쟁소설은 일반성이 그러하듯이, 군인들을 그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지닌 희생과 의무·용기·애국심은 물론 전장에 편재되어 있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의 불안한 심리상태, 개인과 조직집단간에 내재하는 관계—전우와의 관계, 상관과 부하, 이편과 적군 등—의 연대나 어긋남 및 죄책감과 전쟁의 의미에 대한 제시를 함축시키는 것이다.

<중략>

한편 이와는 달리 전쟁소설은 곤경에 빠트리는 작전사령부의 명령과 개인의 양심의

33)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명령과의 괴리와 갈등 또는 지휘관과 하급자와의 긴장의 상황설정을 통해서 군대로 표상되는 조직의 냉엄한 질서와 개인간의 마찰을 제시하기도 한다. 명령은 항상 공격본능을 촉발하고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나 반발이 내재한다.³⁴⁾

최현식 역시 위에서 보여주는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병영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작품을 발표한다. 이 두 작품의 시선은 모두 조직집단과 개인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최현식은 군대 내 경직된 조직과 부자유 등을 비판하면서도 인물간의 대립, 사건의 전개와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 인물의 특이한 성격과 행동, 에피소드 등에 더 비중을 둬으로써 작품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해 버린다. 강하고 분석적인 어조로 군대라는 조직을 비판하려는 듯 하다가 어느새 작가 특유의 가벼운 스케치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1960년에 발표한 「돼지와 SMG」다. 이 작품의 주인공 薛凡浩는 자유를 중시하는 인물로 군조직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와 나는 언덕에 누워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늙은 소나무의 잎새가 햇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우리들 인생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이지?」 하고, 그는 허공에 시선을 묻은 채 내게다 말을 건네었다. 「글쎄…」 하고, 내가 머뭇거리는데 「상당히 둔한 편이군.」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 자유, 이 자유에서 더 귀중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는 무엇에 취한 듯이 묵묵히 담배를 빨고 있었다.³⁵⁾

화자인 '나'는 설범호를 육군신병훈련소에서 만난다. 돈의 용도에 대해 굳이 따지지 말고 돈을 거두어오라는 소대장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계속 고된 기합을 받고 있던 참이다. 이런 소대장에 대한 적대감이 둘 사이에 공통적으로 형성돼 자주 어울리게 된다. 소대장의 기합이 사나워져갈수록 대원들의 연대감은 강해진다. 설범호와 '나' 역시 개인적으로는 소대장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지만, 대원 전체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소대장의 기합을 오기로 버텨낼 뿐이다. 지휘관의 비리가 갈등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해소 방법에 있어 작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군대에 적용하지 못하는 설범호의 성격은 신병훈련소를 벗어나 포병학교에 입교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지휘관과 하급자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동료들끼리의 관계를 작가는 설범호를 통해 그리려 한다. 기상에서 취침까지의 시간을 판에 박은 듯이 굴러대는 포병학교에서 설범호는 동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변한다.

나는 그가 이곳 포병학교에 와서 대단히 변했다고 생각되었다. 세상에 이처럼 쓸개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안타까우리만큼 그는 뼈가 없는 짓을 하여 전우들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나는 이곳 퀘셋 지배하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3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1945-1990』(민음사, 1991), pp.125~126.

35) 최현식, 「돼지와 SMG」, 앞의 책, p.98.

하였는가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우리들(백구십 여명의 후보생)은 두 개의 퀘셋에 수용되어 있었다. 이것은 보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내무생활이 이만저만 까다롭지 않은 점이였다. 장차 기계(砲)를 만질 사람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상에서 취침까지의 시간을 거의 기계적으로 서둘러야만 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자기 앞의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판국이었다. 실로 손톱만큼의 융통성도 없었다.

<중략>

아무튼 이러한 새 환경이 薛후보생을 맥살머리가 없는 인간으로 변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 영경귀같이 상심하던 친구가 노상 풀이 죽어있으며 곧잘 탈선하여 전우 전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었다.³⁶⁾

군대의 경직성이 비판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직성에 설범호만 탈선 조짐을 보인다. 설범호의 탈선은 美 군사고문관 G소령 숙소의 울타리 굽에다 똥을 누는가 하면 미귀영(未歸營) 등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동료들은 매번 괴로움을 당한다. 설범호가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전우 전원은 기합 등의 대가를 같이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에 동료들은 전우애로 그를 감싼다. 어떤 전우에게는 그가 영웅으로 생각되기까지 할 정도다. 그러나 사건의 강도가 더하고 빈번해질수록 그를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 이후 설범호는 소위로 임관되어 F포병대대에 '나'와 함께 배치된다. 어느날 설범호가 행방불명됐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강가에는 설범호의 군복과 군화만 있을 뿐 사람은 없어 모두 죽은 것으로 생각한다. 시체라도 건지기 위해 밤새 포대원들이 수색작업에 나서는 등 부대 안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이때 설범호가 나타난다. 고무침낭 안에서 낮잠을 자다 이삼십리를 표류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설범호는 급기야 군대에 부적합한 인물보다는 사회성이 부족한, 좀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되기까지에 이른다.

이 삼십리 표류사건 후, 나는 薛소위의 바탕이랄까 사람됨이랄까 그런 것을 놓고 몇 가지 사고(思考)를 일삼아보았다. 그는 <膽>이 엄청나게 큰 편이 아니면 <8分이나 9分>가 된다고 하겠는데 결국 내 견해에 있어서는 후자편이 지배적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좀 부족한 인간같이만 생각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軍隊>라는 세계에 적응이 안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변명도 해보았지만 <軍隊>라는 세계가 사회의 연장이고 보면 그를 변명할 길이 막연해지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이런 쪼의 사고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동기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포대장은 부하장교인 그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주의를 택하고 있었다.³⁷⁾

설범호의 괴벽은 신임 대대장이 부임한 후 더 드러난다. 돼지 세 마리씩 각 포대에 지

36) 최현식, 「돼지와 SMG」, 위의 책, p.99.

37) 최현식, 위의 책, pp.108~109.

급하고 잘 키운 포대에 시상을 할 것이라는 대대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설범호는 돼지를 잡아 포대원 전부 회식을 하게 한다.

포대장의 보고를 듣자, 대대장은 薛소위를 대대장실까지 구보로 올라오도록 명령했다.

—팡, 따라 따따, 따따, 팡

난데없이 울리는 총소리에 나는 상황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팡, 따라 따라, 팡.

비탈길을 薛소위가 SMG(기관단총)을 공중에 대고 쏘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철모를 깊숙이 내려쓰고 연달아 썩붙이는 것이었다.

질은 녹음 속에서 울어짖던 뼈꾸기가 울음소리를 멎었다. 하오 두시의 고요. 그는 정적을 찢으면서 터벅터벅 대대장실로 통하는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팡, 따라따따 따따따. 그는 공중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이눔아, 너는 지엠씨 다섯대를 팔아먹었는데, 그래, 내가, 돼지 두 마리를 잡아 못 먹어… 응.」 하고, 그는 대대장실쪽으로 그 큼직한 안광(眼光)을 겨누면서 외쳤다.³⁸⁾

위 인용문에도 나타나듯 중대장은 지엠씨 다섯대를 팔아먹는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돼지를 잡아먹은 설범호를 잡아들이려 한다. 설범호는 이에 반항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작가는 지휘관의 부정에 대해 비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현식은 지휘관과 하급자간, 동료들간의 관계를 다루려던 예초의 의도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해 버린다. 개인의 존재가 고려되지 않는 군대라는 조직의 경직성과 비리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조직 내에서의 갈등과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범호라는 한 인물의 기이한 성격에 대해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흑과 백의 구분을 싫어하고 모호함을 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작가의 인식은 이처럼 조직 내의 갈등을 다룸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어떤 저항의식도 느낄 수 없게 한다.

반면 「435 OP의 가족」은 최현식의 다른 작품에 비해 사회의 부조리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비교적 강하게 전달된다. 하지만 이 작품 역시 당대의 다른 작품들처럼 전쟁 직후 군대 내의 긴박감, 공포, 좌절 등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보다 여전히 여유 있는 관망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435고지에 위치에 있는 OP에는 나와 쏠 상등병, 黃 일등병이 있다. 黃 일등병은 지방 서기 시절의 부정투표 사건으로 인해 군대에 피신 온 인물이다. 줄과 면을 이용해 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다. 자신의 처지보다 못한 쏠 상등병을 상급자임에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쏠 상등병은 黃 일등병보다 다섯 살이나 위인데다 상급자다. 하지만 黃 일등병에게 상

38) 최현식, 위의 책, p.113.

급자로서의 대우받지 못한다.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쓸 줄은 몰라 黃 일등병에게 늘 꺾박 받으며 글을 배우고 편지를 대신 써주도록 부탁한다. 어쩌다 생긴 담배 한 대조차 黃 일등병과 나누어 피우기 위해 보관할 정도로 동료에도 있다. 또 휴가를 갔지만 꺾먹을 빚어먹으며 그것이나마 만족치 못하여 칩뿌리를 캐먹으며 얼굴이 텅텅 부어서들 차마 더 오래 머물러 있자 해도 그럴 형편이 못되어 일찍 돌아와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그가 군대에 오는 바람에 부인 혼자 병든 조부모를 모시며 집안 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노동력을 제공할 만한 사람이 없어 가족들은 늘 굶주려 있다.

휴가 갔다온 지 며칠 안 돼 全 상등병은 막내딸이 홍역으로 죽었다는 편지를 받는다. 全 상등병은 휴가를 요청하지만 공평성 문제 때문에 거절 당한다. 그러는 사이 줄과 면을 계속 강조해 온 黃 일등병이 후방으로 전속특명을 받게 된다. 집 걱정 때문에 고민하던 全 상등병은 끝내 탈영을 하게 되고 고향집에서 헌병대에 붙잡힌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全 상등병과 黃 일등병을 통해 처세술 좋은 사람이 편하게 사는 사회와 군대의 부조리, 당대의 처절한 빈곤, 부정투표 등 혼란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다.

「지방서기 십구봉짜리가 주사급만이 출입할 수 있는 개표소에 들어갔다면 이야기는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全 상등병님…」

黃은 서서히 비우고는 전에게 잔을 돌리고는

「어떤 간부 한 사람이 날 다방에 청해놓고, 위스키 티 한잔, 그리고 그 간부가 하는 말이 황군 용감하나? 용감합네다 했지요. 재치있게 해봐라기에 나 그런 것 못하겠습시다, 했지요. 개알다, 다쳐도 내가 다치지 자네사… 우리 과장님이 옆에서 옆구리를 슬쩍 꼬집지 않겠어요… 좀 얼떨떨했지만, 이튿날 아침 심사책상을 맡았지요. 자꾸 정전이라 한쪽편의 참관인들은 호주머니에 초똥가리와 성냥을 잔뜩 넣고 앉아있다가 연속 불을 켜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서있던 순경이 총구멍으로 옆구리를 쿵 지르면서 하는 소리가 걸작이라. 화재의 우려성이 있다! 하하…」

「야아 그것 참 재미났겠다.」

全이 싱글벙글 장단을 맞춘다.

「全 상등병님 한잔 더 주이소.」

다시 한잔을 비운다.

「재미라니요. 진땀을 뺐았됐지요. 구십메에다 십매를 엮어서 연속 내던졌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감치 시장이 개표소에 나타나더니, 표무데기 하나를 집어 들고, 와락 헤아려보곤 누가 이랬노! 또 한무데기를 집어들더니, 와 이게 이리 됐노! 허참, 우리들은 서로 얼굴만 힐끗힐끗 훑겨보고 있는데 단짝 체포라. 참 정치바람 우습데다. 결국 오만환의 퇴직금을 받고 물러났지만…한동안 신문쟁이들이 쫓아 다니는 바람에 혼났었지요…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저 군대에 피신온 택이여요. 군대란 피신처도 됩디다. 네.」 하고 안경을 벗어 앞을 옷섶에 씻어 걸치더니 다시 한잔을 청한다.

「저 혼자 떠들어서 안됐습니다. 용서해주시지요. 지방서기 십구봉, 참 저도 사회에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서 좀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나갈 도리가

없는걸 어이합니까. 소위 병사제라 어느날 아침이구 모닝커피를 안 마시구 출근하면 잠이와서 일을 못하는걸요. 흥, 늘 그랬었는데 이젠 커피맛조차 잊어먹었으니 파이라
,39)

黃 일등병이 입대하기 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부정개표 사건에 연루되어 퇴직하게 된 경위를 쏘 상등병에게 털어놓는 대목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작중 화자인 '나'는 쏘 상등병과 黃 일등병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면서 이들을 통해 군대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부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현식은 군생활 체험의 소설화를 통해 군대의 경직성, 처세술 좋은 사람이 군대에서도 편하게 사는 부조리, 부정투표 등 당대의 혼란과 처절한 빈곤을 고발한다. 하지만 그의 군조직에 대한 비판은 분석적인 갈등 구조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의 특이한 성격과 행동 등에 초점이 주어짐으로써 에피소드적인 경향으로 흘러버린다. 작가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주는 것이다.

3) 사소설에의 관심과 문체의 변화

제대 후 최현식은 문체의 변화를 시도한다. 서정적인 그의 문체에 더 감성을 내세워 감각적 관념이 드러나도록 하고자 한다.

“감각적인 관념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닥터 지바고」에서처럼 설명과 지문을 아예 없애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을 쓰는 거지요.”40)

이 시도가 드러난 작품이 1959년에 발표한 「花子時節」이다. 이 작품에서 최현식은 자신들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념까지도 드러내놓고 거기에서 일종의 자학적 쾌감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소설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또 그는 섹스를 작품에 동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표현하는 섹스는 노골적이거나 음란하지 않다. 오히려 작품에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에 대해 宋尙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작가가 <섹스>와 동반하게 되면 음란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최현식씨의 소설은 전혀 음란하지 않다. 「花子時節」에서 최근 발표된 「娑履歷」, 「賞蘭抄」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설은 거의 <섹스>와 관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깨끗한>정서가 고인다. 그리고 그 비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소극적인 <스케치>이다. 그것이 성희(性戲)가 천박해지는 것을 부화(浮化)하고 있는 것이다.41)

39) 최현식, 「435 OP의 가족」, 위의 책, pp.76~78.

40)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花子時節」의 주인공 '나'는 퇴역장교로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낸다. 혼인은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단칸방 신세라 아내와 딸은 아내의 고향 제주도에 가 있다. 어느날 아침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준 가위를 부러뜨리고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수리비로 들어갈 돈이 아까워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런 어머니에게 자신이 공사장에 가서 땀질을 해다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고민한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듯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아랫배에 뒤영키는 고소 때문이었다. 뒷마루 끝에 가서 앉았다. 옷음의 발작을 갈았힐 도리가 없었다. 불의의 상심으로 허튼어진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것이냐? 참 신기한 일이구나. 어머니—완전 폐물의 가위를 버리는 일에 인색하다거나 너무나도 민감히 돈과 결부된다거나—에 대한 반발은 결코 아닐 터인데...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다. 나는 산소의 날카로운 작열을 생각하는 순간, 어떤 엉뚱한 광경을 망상한 것이었다. 저 세종로 한복판에다 철근을 늘어세우고 거대한 모습을 다듬어가는 우남회관의 그 공중 작업장을 찾아서 <어머니>의 가위를 가슴에 품고 층계를 오르는 한 퇴역장교, 장기실업을 체념해버린 심히 낙천적으로 되어먹은 그 초췌한 낮잠이 번뜩 뇌리를 스친 것이었다.

<거기 찾아가면 지난날의 충성을 보아서도 설마 돈이야...>

아무튼 이런 허무맹랑한 망상으로 하여 어떤 고소가 견딜 수 없이 목구멍 가득히 치밀어오른 것이었으며, 그것을 입밖에 내지 말자고 나는 눈물을 흘릴 뻔한 것이다.

나는 마침내 고소를 건디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었다. 잿빛구름이 떴지어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주일째 구질거리는 비구름이다.⁴²⁾

장기실업자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는 술집창녀인 花子와의 섹스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며 '나'는 花子와의 섹스에 매달린다.

나는 그녀가 하는대로 입술과 뺨을 맡겼다.

창가에 둔황색 햇별이 걸렸을 무렵, 나는 화자의 방을 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의 방을 잊지 못하면서 오는 터다. 어떤 억압된 것을 그녀의 몸뚱아리에다 폭발시켜 왔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녀의 그 꼴처럼 찢득이는 아랫배의 피부가 말할 나위없이 좋다. 젖도 크고 지쳤을 때의 눈이 그만인 것이다. 그리고 돈을 쥐지 못한 날에는 시계를 놓고 물러섰다. 이렇게 시계로 거래되는 날 아침이면, 그녀는 으레 「해장돈」 하면서 백환 지폐 석장을 나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다.⁴³⁾

41) 송상일, 「濟州文學 스캐치—三人 作家的 作品世界」, 『제주문학』4호(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부, 1975), p.142.

42) 최현식, 「花子時節」, 앞의 책, pp.120~121.

43) 최현식, 위의 책, p.127.

이런 '나'에게 아내가 상경한다는 전보가 온다. 花子와 性에 탐닉하며 자신의 처지를 잠시 잊고 있던 '나'는 아내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기쁨과 괴로움을 동시에 느낀다. 딸 란과 함께 도착한 아내에게서 나는 가족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연대'를 느낀다. 아내와의 잠자리를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던 나는 무엇에 쓸거냐 물음에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가위뿔질을 할 거라고 대답하고 거리에 나선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다.

나는 한 길에 나섰다. 차도를 건너 약방에 들어섰다. 미세 콘돔 한 개를 샀다. 그것을 사쓰 포켓에 넣고 즈봉 포켓의 가위를 꺼내 손아귀에 꽂아 움켜쥐었다.

순간, 나는 멍하고 울리는 뒤통수의 고동을 깨달았다. 쇠붙이와 쇠붙이가 부딪는 소리. 주춤 걸음을 멈추고 고동의 의미를 사로잡으려고 했다.

...땀. 땀탕물. 클락슨 소리. 불빛. 불빛의 물결.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발자국만으로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가위, 어머니, 아내, 란, 화자, 콘돔...

<...지금 나는 기어가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다. 나는 기어가 걸리지 않는 자동차다. 아아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온 몸에 뻘히는 땀발을 의식했다.

나는 내달았다.

급정거하는 합승차가 있었다.

차 안의 사람들은 손을 들어 눈앞의 것을 차단한 모양이다. 뒤통수 형클어져있는 것이.

「아이, 이, 개놈우새끼」

운전수가 도어 밖으로 눈에 불이 붙은 얼굴을 내밀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소리의 대상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자 불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내달았다.

「쌍, 개놈의 새끼.」 입에 거품을 뿜던 운전수의 얼굴이 운전대 안으로 거두어졌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히히, 지극히, 타당한, 칭호...>

나는 소리없는 웃음을 아랫배가 아프도록 웃으면서 언덕길을 올라갔다.44)

최현식은 이 작품에서 사소설의 형식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작가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하면서 상념까지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私小説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문체의 경향에서도 「花子時節」은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정적인 그의 문체가 주관적 서술과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6·25 직후 10여년동안 젊은 층의 작가들 사이에 유행했던 새로운 경향의 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작

44) 최현식, 「花子時節」, 위의 책, pp.140~141.

품에 활용하려 했던 것 같다. 종래의 객관적 사실주의나 묘사적 문체에 반기를 들고 주관적 서술, 내부독백, 의식의 흐름 등을 추구해나가는 경향⁴⁵⁾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작가가 전달하려는 목소리를 애매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조차 확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장의 틀을 바꿔보려는 작가의 시도는 스스로를 딜레마에 빠지게 해 자신이 쓰는 작품에서조차 의식의 불분명함을 나타나게 한 것이다.

“새로운 문체로의 시도는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때가 나의 첫 번째 문학적 고비였죠. 이후로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한 이후에서야 이런 시도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산문의 경우에 감성을 앞세우는 글쓰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⁴⁶⁾

작가의 고백대로 최현식은 한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고 제주도에 정착한 후에야 서정적인 자신의 문체를 확립, 그만의 소설적 특성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대 후 사소설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작가는 이와함께 주관적 서술 등에 치중하는 문체의 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실패,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2. 제2기(1961년 ~ 1980년)

1) 낙향의 아쉬움

최현식은 1961년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낙향하게 된다. 제주도에선 그는 1980년 신문사 국장직을 그만두기 전까지 비교적 왕성한 창작의욕을 보여준다. 이 시기 최현식의 소설세계는 주로 망향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문학세계가 대부분의 평론가들에 의해 망향으로 거론될 만큼 이 시기 주요 작품들은 실향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관되어 있다. 한동안 딜레마에 빠져있던 작가가 자신의 문장 틀을 확립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발표되는 그의 소설들은 서정적 색채가 짙게 채색되어 있다. 동시에 사소설의 형식은 심경소설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

제주도로의 낙향은 작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안개속에」(1962)다. 이 작품은 최현식이 제주도 정착 후 처음 쓴 작품으로 낙향할 때의 심경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주인공 '나'는 '배배꼬이기만 하던'⁴⁷⁾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옮겨가기로 결정한다.

45) 천이두, 「韓國現代小說論」(형설출판사, 1996), p.158.

46)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제주는 아내의 고향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1·4후퇴 때 머물렀고 휴가 때 아내를 찾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낯선 땅이다. 더욱이 고향인 함경남도에서는 서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있다.

어머니 역시 낙향을 내켜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이유에서다.

...어째서일까. 이 마구 구겨지는 가슴속은... 그 거리의 플라타너스 생각 때문일까. 광화문에서 명동, 언제나 지쳐서 머무르게 마련인 밤들, 그래서 쓸쓸한 호주머니를 털어 오이소백이 에다 대포잔을 나눈다는 벗들, 그 녹음을 두고 낙향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일까. 지치고 밀창이 빠져 허둥거리는 거리에서, 아무리 녹음이 좋으면 뭘하랴. 아닐 것이다. 어머니 때문일 것이다. <어머님, 내려가기로 합시다. 일자리도 마련되었으니 온 식구가 한데 모여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일인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사람사는 곳 다 마찬가지로...> <암, 모여서 살아야하지...> 결심을 못하시는 어머니.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시고, 코가 시큰하시는지 코를 푸시고 <그래 내려가자니까...> 목소리가 젓는다. 제주도 참 멀구나. 한라산이 좋고, 바다빛깔이 그만이라고 하지만, 제주도 참 멀구나. 아마 어머니는 마음 속으로 이런 못 메워짐을 되씹으시는 것이겠다. 자꾸 내 눈길을 피하시는 품이. <어머님, 한데 모여서 사는 것이 좋겠지요. 네!> 마침내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어머니의 결심을 원한다. <그러자는데...> 의연히 물기로 하여 흐려지는 목소리. 나는 기분이 껴다. <이놈의 잘난 서울, 지치고 밀창이 빠져 허구헌날, 제에길 무엇이 아깝다고 그러십니까! 혼자 계시다가 지난 겨울처럼 구공탄가스에 욕이나 보시자구 그러십니까!> <내가 어쨌다구? 내려가자는데...> 어머니는 적지아니 노하셨다.⁴⁸⁾

제주도로 내려오는 '나'는 불안에 휩싸인다. 제주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초로의 사나이를 만난 '나'는 그 사내의 불안에 동조되어 간다. 사내는 경기도 강화가 고향이다. 뭇 때 한 철의 돈벌이를 위해 친구만 믿고 낯선 추자도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번번이 추자도로의 착륙은 실패한다. 그 바람에 여비는 다 떨어졌고 자식들은 저녁도 못먹어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상태다. '나' 역시 제주도는 낯선 곳으로 이 사내와 은연중 동질감을 느껴간다. 그러면서 이 사내처럼 제주도에서의 삶이 안개처럼 막막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껴간다.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진다.

(아아 제주도 참 멀구나.)

동해의 북녘에서 삼팔선을 넘어, 서울의 배배꼬임에서 제주도를 찾아 지금 해협을 선실구석에 누워있는 고독 속으로, 나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했다.

개마고원 기슭의 그 거리는 아름다웠다. 그 거리에서 신작로를 오리쯤 내려오면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다. 백호가 되나마나한 마을사람들은 봄 여름은 논밭에 매달리고 가을 겨울은 해사에 몰두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저 광해군 때 사회의 난을 피해 이 마

47) 최현식, 「안개속에」, 「紅裳」(현대문학사, 1973), p.152.

48) 최현식, 위의 책, p.143.

올에 정착했다는 정가네 일가와 우리 일가는 낡은 가문을 자랑하면서 넉넉스레 살았었다. 내 증조부 때 세 척의 큰 목선이 있었고, 그 배들이 멀리 영남까지 해산물을 싣고 가서 명주나 꽃감 따위로 바꾸어가지고 돌아오면 큰 돈이 생기곤 했다는 것이다. 우리집 뒷마당의 은행나무와 향나무, 그리고 제삿날 밤에 마을사람들이 경탄해쌓는 그 술한 계기는 그때에 구해온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거목이 되었을 무렵부터 가권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 내가 여남은살이 되어서 전지와 돈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나의 아버지의 도박과 술로해서였다. 이 당진의 한창 때에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를 만났다. 어머니. 자그마한 체구에 손끝이 영글어 어떤 일에서나 재치가 있어, 달려가는 가권을 바로잡게 되리라고 마을사람들의 평판이 자자했다는 젊음. 그런 시절의 어머니가 어렵פות이 회상되지만, 온 식구의 옷을 마련하는 자자 브레한 일들을 비롯하여, 여름 한철의 밭일, 겨울의 명태잡이, 그리고 도박과 술로 하여 병든 남편의 시중 등, 남존여비의 가르침을 수직하려고 왕왕 기가 막히는 바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재치와 유교의 강한 실천으로도 붕괴는 막을 길이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무렵, 수십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가산을 거의 잃어버렸고 그로부터 다시 몇해 지난 팔월 십오일, 사실은 아무런 관심사도 될 수 없는 그 가문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해 봄, 우리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붉은 군대의 진주,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노래와 갖가지 시위, 숨이 막히게 반복되는 회의와 자기 비판, 무모한 작업량과 반동분자 등... 삼팔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일은 진실로 성공이었다. 그로부터 십팔년. 나라 일을 맡은 몇몇 인사들의 실수만 아니었다더라면... 그리고 그런 실수를 염두에 두지 말고, 물이 흐르는대로 따라가라는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서 잘 실천했다더라면, 지금쯤은 나도 수세식 화장실에다 등의자에 파이프를 물고 지극한 효도를 누릴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너무 멀어서 싫다는 어머니를 구슬려서 이 뱃길에 오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참, 이 해협이 몇번째인가? 일사후퇴. L·S·T로 전선에 투입. 섬에 둔 아내를 찾아서 몇 번의 휴가. 낙향.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선 이번의 향로. 헤아릴 수 없이 건너보는 해협이지만, 이렇게 멀미를 해보기는 오늘밤이 처음 일인 것 같다.)⁴⁹⁾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제주도도 향해 떠나가는 작가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고향에서의 생활을 하나 하나 떠올리면서,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된 분단상황을 원망하고 있다. 작중 인물에 전이된 작가의 심정은 고향에서 더욱 멀어져 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우울함과 제주도에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2) 망향과 실향의 아픔

제주도에 정착한 후 씌어진 최현식의 소설은 望郷 또는 실향의 아픔이 짙게 채색되어 있다. 「紅裳」(1970), 「셀비어」(1973), 「먼 산」(1977)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紅裳」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실향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작가의 심경이 잘 드러나있다. 주인공 '나'는 신문사 문화부기자로 실향민이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49) 최현식, 「안개 속에」, 위의 책, pp.152~153.

이다. 어느날 육촌동생 '희'가 제주도에 신혼여행 온다는 청첩장을 받는다. 육촌누이와의 만남을 앞두고 '나'는 '가슴이 뻘뻘해져 오는 설레임'⁵⁰⁾을 느끼고 어머니 역시 '기쁨과 초조로움'⁵¹⁾에 공항에 도착하는대로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한다.

'나'와 어머니가 느끼는 설레임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육촌동생의 신혼여행이란 단순한 사건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잠재되어 온 '나'와 어머니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 주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는 팔목의 시계를 보았다. 정각 도착이면 오분 전이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음을 깨닫고, 바다를 향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울렁거림의 이유를 생각했다. 비행기가 기다려지는 초조 때문일까. 회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어디에 이런 노누이가...) 희 신랑의 실망을 당할 속스러움 때문일까.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고향의 하늘과 그 정거장의 플랫폼을 생각하는 버릇, 알뜰한 감수성이, 이렇듯 설레임 속에 있게 하는 것일 게다. 그 땅, 그 마을의 친척들과 이웃들. 소년은 어느 화창한 이른 여름, 아카시아의 녹음 속에서 멀리 뻘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꽃을 줍다가, 북간도로 시집간 사촌누이가 떠난다기에 단숨에 정거장으로 달려가서 누이를 보내며 목이 메어 서있던, 그 플랫폼을 생각하는 버릇 때문일 것이다.⁵²⁾

어머니와 내가 모처럼 느끼는 흥분은 고향선배인 K씨, 신혼여행 온 육촌누이 내외가 한자리에 모여면서 고조된다. 고향이라는 연대감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향에 대한 향수나 설레임을 고향이 제주도인 아내는 느낄 수 없다. 마냥 설레어하는 나에게 편잔을 주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성미두... 뭘 그리 급하다구, 바깥에서부터 야단법석이에요.」 아내가 뽀루통해져서 나타났다.

「희가 신혼여행 왔다는데...」 나는 거나하니 취해있노라는 사실을 이렇게 연성을 높여 알리고는 아내의 시선을 흘려냈다.

「신혼여행 왔으면 왔지요...」 아내는 의연히 서술.

「이런!」 나는 날카롭게 꾸짖다가, 실답지않은 자기를 깨달았다. 그래서 아내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자네야 실감을 느낄 리가 있다. 내 기분의 십분의 일을... 육촌지간이라지만 우리가 나누어야 할 태산같은 이야기를 알 리가 있다.) 이런 말을 꺼내려다가 그만두었다.⁵³⁾

아무리 가까운 사이이고 그 아픔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직접 체험해 본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실함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작가의 목소리

50) 최현식, 『紅蓑』, 『紅蓑』(현대문학사, 1973), p.219.

51) 최현식, 위의 책, p.219.

52) 최현식, 위의 책, p.222.

53) 최현식, 위의 책, p.234.

다. 이러한 의식은 작품 「먼 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형은 실향의 아픔을 잘 모르실 겁니다”

입을 열고 T씨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아신다면, 아마 개념이랄까, 그런 정도겠지요. 실감이 어떤 것인가는…”

“실감이라면, 얼마만큼 크고 깊은 겁니까?”

“아찔할 만큼 크고 깊은 거지요”⁵⁴⁾

실향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작가는 관대하다. 독자에게 읽히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작가가 작품에 항상 설정한다는 여자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실향이라는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부모가 북쪽이거나 이념에 희생되어 험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먼 산」의 조마담은 어머니 고향이 원산이고 아버지 고향이 신의주다. 실향민인 셈이다. 또 「청진동 귀뚜라미」의 성혜 역시 부모님 고향이 평양이다. 「菊花베개」의 조수미는 좌우의 이념에 희생된 여자다. 직장을 얻는 곳마다 신원조회에 걸려 결국 화류계에 몸 담게 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작가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한다. 작품속의 화자인 ‘나’와 여자들은 단 한번의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도 그들이 가진 아픔을 쉽게 이해하고 이내 뉘를 느낀다. 아내에게서 느끼는 이질감과는 다른 감정이다. 이는 물론 실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설레임과 흥분으로 시작되지만 금세 자조로 변해버린다. 또 실향민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서 어두움과 어떤 궁기를 느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점점 멀어지고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더욱 절박하게 깨달아가기 때문이다.

「잘난 놈의 고향, 시위해보면 될합니까.」 나의 고소 섞는 말을 「잘난 놈의 고향이라니… 허허… 모르는 말씀이지. 그래 이런 때에 푸념이라도 지껄여서 꼭 잠긴 가슴을 열어놓고 봐야지.」⁵⁵⁾

「우리 실향민들…아까 동박집 주인의 얼굴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말이야…어둠이랄까, 어떤 그늘 같은 것이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지. 주눅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쓸쓸한, 궁기 같은 것 말이야…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인데, 요즈음은 만나면 첫 눈에, 너는 실향민이구나… 알아질 것 같단 말이야… 물론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넨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글쎄…」

54) 최현식, 「먼 산」, 『먼 산』(正宇社, 1994), p.63.

55) 최현식, 「紅囊」, 앞의 책, p.240.

「하긴, 꺾이질 않고 기운은 내고 봐야겠지만…」
「나이 탓이겠지」
「아무래도 기가 죽어가는 것 같아…」⁵⁶⁾

고향은 인간의 귀소본능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갈 수 없는 현실을 질게 깨달을수록, 나아가 들어갈수록 더욱 강렬해진다. 최현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77년에 발표된 「먼 산」⁵⁷⁾은 이러한 의식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십세의 실향민이다. 수석을 探石하던 중 우연히 수석 ‘먼 산’을 발견한다. 고향 마을 뒷동산을 닮은 ‘먼 산’은 ‘나’에게 어린 시절의 고향을 떠올려주는 매체다.

그후로 ‘먼 산’은 이따금 40여 년 전의 뒷동산으로 모습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이어지는 것이었다. …백사장에 널려진 정어리박, 고추잠자리, 썰매, 어느 노인의 철도자살, 철쭉과 구렁이, 그 헤헤의 이름은 운돌이였든가… 유절이들, 연싸움의 가을 하늘.

아무튼 나는 ‘먼 산’으로 해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의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는 일이 적이 흠족스러웠다.⁵⁸⁾

그러나 ‘먼 산’을 전시회에 출품했다가 그만 도둑을 맞게 되고 ‘나’는 ‘아찔할 만큼 크고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먼 산’을 통해 달래왔는데, 다 소나마 위안을 주는 그 소중한 매체를 잃어버렸으니 실향의 아픔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실향 30년… 산천이 변한다는 10년이 세 개 아님니까. 이걸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뒷동산이라구, 어릴 때 놀던 낮은 산 하나 있죠. 그 산에 한 번 올라가 보구,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 그래두 좋겠다, 이런 막잡은 생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보는 일과 죽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군요.”

“나이 탓도 있겠쥬. 엉뚱뚱 떠밀려 오다보니, 아차, 이제 요지부동으로 막혀 버렸구나, 길은 아득한데… 이제 기껏 산땀자 20년이 아닌가, 그래서 바꿀 수 있다. 그런 순간적인 충격이 되는거겠지요.”⁵⁹⁾

이처럼 남아있는 삶과 선뜻 바꿀 수 있을 만큼 이제 고향은 커다란 그리움의 대상으로 절실하게 자리잡는다. 고향을 멀리 두고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은 유소년 시절에

56) 최현식, 「들녘」, 『黑猫日記』(創原社, 1985), p.179.

57) 이 작품은 1977년 현대문학에 「細川橋」로 발표되었다가 후에 작품집에 수록할 때 「먼 산」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58) 최현식, 「먼 산」, 앞의 책, p.45.

59) 최현식, 위의 책, p.63.

대한 회상이다.⁶⁰⁾ 최현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작품을 통해 찾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의 자연에 집중되어 있다. 작가는 문학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고향을 찾으려 하고 특히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강하게 되새김질함으로써 회미해져가는 고향을 형상화시켜 낸다. 21세까지 고향에서 살았지만 작품들은 기억이 선명한 소년기 이후의 것들보다 유년 시절과 고향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작가는 작품 「먼 산」에서 이러한 그리움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을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아요. 늘 눈앞에 가물거리는 것은 뒷동산의 할미꽃이라든가 아카시아 꽃길이라든가, 그런 따위 자연에 속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⁶¹⁾

문학행위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고향찾기와 동일한 것이 된다. 고향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며, 어머니로 상징되는 인간의 정신적 고향이며, 유년의 기억들이 간직되어 있는 곳, 즉 자기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있다.⁶²⁾

최현식에게 있어 문학은 향수를 달래는 유일한 통로다. 또 기억에서 회미해져가는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30년 가까이 제주도에 정착해 제주인으로 생활하면서도 최현식은 문학행위를 통해 끝없이 자신의 의식 속에 고향을 형상화시켜 놓고 그 그리움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라는 현재의 생활에 융화되기 보다는 ‘제주도가 타향’이라는 생각이 더 강렬해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이방인으로서의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최현식을 의식과 정서의 측면에서 半濟州人으로 명명한 김영화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현식은 자신의 주변에서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질수록, 자신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이 멀어져감을 절실히 느끼고,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작품의 형상화를 통해 달래는 시도를 한다. 하지만 작가에게 고향이 멀어져간다는 것은 숙명이다. 때문에 최현식은 이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셀비어」는 이런 작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셀비어」는 고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중의 ‘나’에게 어머니는 고향을 이어주는 마지막 혈육이자 고향을 느낄 수 있는 통로다. 해방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단 둘이 월남해 고향과는 멀리 떨어져 제주도에 살고있는 주인공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곧 고향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나’는 어머니의 영정을 준비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셀비어 씨를 받아들 생각을 하는 등 어머니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인다.

60) 김영화, 「최현식」,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p.213.

61) 최현식, 「먼 산」, 앞의 책, p.64.

62) 이대규, 『한국근대귀향소설연구』(이문문화사, 1995), p.260.

살비어는 해가 바뀌면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이고, 이 해 안에 맞이하게 될 어머니의 임종은 어떻게 하지. 어떤 촌노(村老)가 이 세상의 온갖 죽음과 탄생은 썰물 때라고 했으니, 어머니의 임종도 제주 바다의 물이 빠져 나갈 때가 되겠지. 야밤중이나 새벽에... 「어머니, 어머니...」 몇번 불러보고, 조용히 내려 쓰다듬어 눈을 감게 하고, 아이들이 일어나 웅성거리고, 그러나 허둥거리지는 말아야지.⁶³⁾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강렬해지지만 반대로 고향에서도 멀어갈 수 있음을 작가는 순응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최현식에게 있어 고향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고향을 느낄 수 있는 매체나 사건이 있으면 쉽게 흥분하게 된다. 실향의 아픔을 겪어봐야 느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상대에게는 관대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향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작가는 애써 문학행위를 통해 고향을 형상화, 사라져가는 고향을 기억 속에 잡아매려는 자세를 보인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향과 점점 단절되어간다는 것을 최현식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 고향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제3기(1980년 이후)

1) 실직의 충격과 관용

1980년에는 1979년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찬탈에 성공한 신군부에 의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이 자행되었다. 이 때 최현식은 강제해직 당한다. 당시 김대중의 구속에 대해 당연하다는 사실을 신도록 한 신군부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작가가 밝히는 해직사유다. 갑자기 실직한 최현식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심정이 여과되어 있는 작품이 1981년에 발표된 「오늘의 椅子」다.

주인공 나는 실직 후 무슨 요일인지도 모를 만큼 감각 없이 지내고 있는 인물이다. 아내는 이런 나에게 질타의 눈길만 보낸다.

“경 상심해 있으믄 누계가...”
마루에서 아내의 반드럽지 못한 목소리가 나의 적요를 부셔냈다.
“상심은 누가? 철딱서니 없게스리...”
나는 대뜸 고개를 돌려 불었다.
“철딱서닌 누계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63) 최현식, 「살비어」, 『먼 산』(正宇社, 1994), p.121.

“그래, 이런 꼴루 나왔을 줄은 몰랐읍쥬, 예? 부출 치며 술집년들 속에서 망창일 때 사...”

“...”

나는 가슴에 치미는 것을 눌러 앉히고는 다시 창공 속에 눈길을 묻는다.

...일터를 잃은 후로 석 달, 늦잠에다 아침부터 우두커니 하늘을 지켜보고 앉아있다. 무일푼으로 장차 이 잔뼈들의 생활을 어떻게 운행해 갈 것인가? 감내할 길 없는 고통과 공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64)

일터를 잃은 후 석달 동안 별로 하는 일없이 늦잠을 자며 하루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작가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최현식은 실직의 충격을 낙천적인 그의 기질로 치유해가려 한다. 그의 또다른 작품 「봉선화」의 '나'를 통해 오히려 용서해야 한다는 관용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인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가만히 앉아서 소설 나무랭이나 가지고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꺼낸 말을,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 사과나무 말씀이군요.”

M씨가 받았다.

“양심으로 말하면 선언에 동참한 두 분 쪽이 되겠지요.”

“가슴에 못이 박히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갇아야지 않습니까?”

하고 M씨. ‘퇴직 언론인’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당했으니 갇는다? ...용서해야지요.”

“용서요?”

“용서라기보다도... 가슴에 칼을 품고 있으면 문학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지요.”65)

실직 후 작가는 「아버지의 여름」, 「고동색 리본」, 「그날의 달빛은」, 「봉선화」, 「어떤 피서」, 「오늘의 椅子」, 「용내풍경」, 「濟進洞 귀뚜라미」, 「細花理에서」 등을 발표한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실직 후 작가가 보인 관용과 포용력이 바탕에 깔려있다.

1985년에 발표된 「아버지의 여름」은 전쟁소설이다. 1947년부터 전쟁이 발발한 1950년의 해방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다가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이웃 십장아저씨의 밀고로 억울하게 잡혀간 뒤 생사확인이 안된 상태다. 전쟁이 한창일 때 아버지는 인민군 장교가 되어 찾아온 제자의 뺨을 뿌리치지 못해

64) 최현식, 「오늘의 椅子」, 위의 책, pp.259~260.

65) 최현식, 「봉선화」, 위의 책, pp.161~162.

제가 선물한 쌀을 받은 적이 있다. 이웃 십장아저씨가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자마자 이를 밀고한다. 이 이유로 아버지는 치안대에 끌려갔고 그 후로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밀고한 대가로 십장아저씨는 치안대 완장이 된다. 이런 십장아저씨를 '나'나 어머니는 용서한다.

“광목을 먹구 아버님께 선수를 쓴 그 배신자름요…”

“또 그 얘기… 당신 집념두…어머님이 한사코 말려서였다구 하잖았소. 보복은 보복을 되풀이하게 될 뿐이니 용서해주라구…돌아가실 때 유언까지 하셨다구…몇 번 말해야…”⁶⁶⁾

“맞아. 그 유연성이지. 절대적이야. 정치가 유연해야 하구, 인생관, 사회관, 예술에 있어선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구… 안그래요?”

“맞습니다.”

“제에기… 볼 일 하나 없는 경직성들…개나발이라지, 제에기!”⁶⁷⁾

이러한 작가의 모든 것을 포용하려는 자세는 인생관 등에 있어서도 유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작가의 낙관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실직 후의 어려움 등도 ‘세상사 궁하면 통한다.’⁶⁸⁾는 낙천적 인식으로 극복해가는 작가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 老年의 상실감과 소외

원래 낙천적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老年에 느끼는 상실감과 사회적 소외감은 최현식에 게도 감지된다. 그가 실직한 것은 노년기에 접어드는 56세였다. 제주도에 정착한 후 자신의 활동 근거지나 다름없던 직장에서 강제해직 당한 그로서는 老年의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직 후 발표된 그의 작품들은 퇴직한 老年의 인물들이 많다. 이들은 지난 날을 회고하거나 老年에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 상실감 등을 토로한다.

대머리가 먼저 일어나 허우적거리는 안경을 부축해 세웠다.

「어찌 모두 이러오. 정말 가내지겠소?」

등산모는 목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가내지지 았구…암! 가내지지 았구. 그래, 나보구 늙었다구? 모가지라구? 잘들 해 처먹으라 지비. 개새끼들!」

66) 최현식, 「아버지의 여름」, 위의 책, pp.36~37.

67) 최현식, 「그날의 달빛은」, 위의 책, p.144.

68) 최현식, 「오늘의 椅子」, 위의 책, p.281.

하고 안경은 발걸음을 옮겨 놓으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⁶⁹⁾

「어떤 山行」의 일부분이다. ‘안경’으로 불리는 이 인물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근무해오던 직장에서 실직 당하게 됐다. 그 충격으로 고향친구들끼리 모여 등산 간 자리에서 평소에 안 하던 술주정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봉선화」에서도 작가는 늙음에 대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털어놓고 있다. ‘나’는 기차를 탔다가 6년전 기차 안에서 우연히 동행했던 노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들들의 집을 전전하는 노파를 연상했던 ‘나’는 이 노파를 보며 ‘무덤들의 영원한 잠이 더 평안할는지 모른다’⁷⁰⁾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老年의 아픔들에 동감한 작가의 시선이다. 이러한 아픔은 「어떤 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 아침의 일이었다. 늘 오장군이 사게 되는 보신탕을 한번쯤 갚아 보자는 생각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아들에게 3만원만 주면 싶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보신탕 직언이 되기가 저어해서 막역한 친구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을 빚었다. 그러자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형편에 2만원 축의금이든 큰돈이지요, 3만원씩이나 어떻게, 하며 제 처에게 2만원 드리라고 이르는데, 그 언동이 여간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망클렸으나, 출근길이라는 생각에 그만 꼭 참고는 매일 아침 머느리가 주는 3천원을 얹은 2만3천원을 호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선 것이다.⁷¹⁾

위에서 인용한 「어떤 피서」의 인물 전 교수는 퇴직금을 아내의 병구완으로 다 써버리고 아들집에서 매일 용돈 3천원씩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아침에 집을 나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퇴역군인 오 장군과 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공짜로 피서를 즐기고 석간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거나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이 전부다. 과거에는 교수로 권위도 있었지만 퇴직 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그는 자식에게 조차 은근히 팔시 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늙음으로 인해 당하는 자신의 서러움을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히기만 한다.

이처럼 작가는 老年에 느낄 수 있는 상실감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작품화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묘사에 그치고 갈등화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경토로에 그치거나 자신을 타이르며 自照해버리는 것이다.

3) 수필에의 접근

작품들마다 수필적 풍모를 풍겨온 최현식은 근래에 들어 수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69) 최현식, 「어떤 산행」, 『黑猫日記』(創元社, 1985), pp196~197.

70) 최현식, 「봉선화」, 『어떤 山』(正宇社, 1994), p.158.

71) 최현식, 「어떤 피서」, 위의 책, p.171.

이에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실직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1인칭으로 쓰여진 그의 작품에서 話者인 '나'가 이제까지의 허구적인 '나'에서 벗어나 사실적인 '나'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작품 「落照」가 실명의 인물들과 실제 있었던 일들로 작가의 추억을 더듬어가고 있다는 것은 최현식의 수필적 관심을 잘 드러내준다.

「봉선화」의 화자인 '나'는 軍 동기생 모임에 참석할 겸 여행을 떠난다. 30년만에 재회한 동기생들과 軍시절을 돌아보고 고향에서 사랑했던 여자를 떠올리며 감상에 젖기도 한다. 서울에 온 '나'는 오랫동안 사귀어 오는 문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다. 강제해직 당한 한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인들에게 용서해야 한다며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는 '나'는 실제 작가의 모습과 체험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故郷」은 서간체로 씌여져있다. 작가의 고향인 洪原郡誌를 받아본 감회를 풀어놓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의 심정을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 소설이기보다 수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6년 발표된 「落照」는 故 김광협시인의 시비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귀포에 갔다가 갖게 된 술 좌석과 서귀포에 얽힌 추억을 회고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김광협시인 시비 제막식이라는 실제 있었던 일과 한기팔, 김광협, 김평윤, 박목월, 최정희 등 실제인물을 등장시키고 있고 화자인 '나' 역시 실제의 '나'와 동일시되고 있다.

최현식은 사소설의 양식을 빌어 작품을 써오고 있다. 그의 소설들은 1인칭 시점을 유지하면서 '나'의 일상과 심경을 그려낸다. 소설속의 '나'는 작가 자신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 독자들은 가끔 주인공의 경험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환상을 겪으며 서술 자체에 믿음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소설 속의 '나'는 어디까지나 허구의 '나'일 뿐이다. 이 점은 같은 산문이면서도 소설과 수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실직 후 그의 작품들은 허구의 '나'와 실제의 '나'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최현식 작품의 수필적 접근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설보다 수필에 더 애착이 감을 고백한 바 있다. 최현식은 굴곡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강제해직이라는 아픔도 관용으로 치유하는 달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가 수필에 접근하고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직 후 최현식의 인생관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화해하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직의 충격과 한을 가슴 속에 쌓아두기 보다는 낙천적 인식으로 극복해가는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년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소설화 하는 한편 수필적 세계에 접근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IV. 소설의 특징

1. 제주를 보는 시각의 양면성

최현식에게 제주도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고향을 잃은 작가에게 제주도는 고향 버금가는 애정의 대상이다. 또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살아온 그는 외지인인 동시에 제주사람이기도 하다.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역시 외지인으로서의 시각과 동시에 제주사람으로서의 시각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1) 자연환경과 풍속에의 同化

최현식은 아름다움과 순수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경은 자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작가의 고백이기도 하다. 자연환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와 순수의 세계를 작품을 통해 작가는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자연은 작가에게 중요한 요소다.

제주도에 정착한 후 접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제주도는 작가의 고향인 흥원을 연상하게도 한다. 이런 제주도의 자연을 최현식은 한 편의 시를 쓰듯 서정성이 강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다.

물숨이는 멀리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말들을 바라보다가 서쪽하늘을 향해 마주앉았다.

오늘도 거대한 화염을 생각해 하는 놀이었다. 유난히 잔잔한 바다. 태양은 구름을 불사르며 떨어져가고 있었다.

물숨이는 갈치빛 수평선에 눈을 부은채 움직이지 않았다.⁷²⁾

무적은 안개의 바다를 향해 쉽없이 부르짖어댔다.⁷³⁾

멀리 등대의 하얀 모습이 선명하다. 해연풍(海軟風)이 보리밭 위에 잔잔한 물결을 놓으며 깔린다.⁷⁴⁾

위의 예문만 보더라도 작가가 그려낸 제주도의 풍경은 아름답고 평화롭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 안개가 잦은 기후적 특성, 보리밭 등이 작가의 감수성과 어울려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최현식에게 제주도의 자연은 보이는 그대로 아름답게 그려지지만, 풍속과 역사 등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의 낭만적인 시각이 유지되지 않고 생활 자체로 여기는 현실적 시각이 나타난다.

72) 최현식, 「夾竹桃」, 위의 책, p.233.

73) 최현식, 「紅糞」, 위의 책, p.231.

74) 최현식, 위의 책, p.221.

“무사 영 늦었?”

물숨이는 춘심이 등의 짐부터 받는다.

“안물(아침바다)에 들젠 허난 늦쭈 안 늦어?”

춘심이는 통명스레 대답하고는 머리의 수건을 벗어 발짚게 탄 얼굴의 땀을 씻는다.

“이거 무신건다 이초록 배냐?”

물숨이는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앞선다.

“보리쌀과 자리젓 호뎌.”⁷⁵⁾

「夾竹桃」의 일부분이다. 방목장에서 4년째 말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물숨이에게 김영감집에서 같이 일하던 춘심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 아침에 물질을 하고 밭일 등 노동을 했던 제주 잠녀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자리젓이 주반찬이었던 제주도의 식생활, 허벅으로 등에 짐을 져 나르고 방목장에서 말을 길렀던 제주도의 풍속 등을 간략하게나마 읽어낼 수 있다.

작가는 지방신문사의 언론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연과 풍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작품에 맘껏 활용해낸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회가 조금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바다를 안개가 덮기 시작했어. 해무(海霧)속의 항로. 그래서 여기에 항구가 있다고 알려주는…」

「아까까지 날씨가 좋았었는데요…」

「좀 번덕스럽지. 철쭉철쭉에는 으레 밤마다 안개, 낮에는 개이고…」

나는 말을 끊고 무적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곳 사람들은 저 소리를 뿔이 큰 수소가 암소를 찾아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지.」 말을 이었다.⁷⁶⁾

버스는 길을 피하듯 머뭇머뭇 멀어져가고 그 빈 자리에 백지만으로 새로 장식한 상여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햇빛 속에 상여는 깨끗했고 장렬은 아주 길었다.

「큰 집에 상 난 거군요…」

나는 눈웃음으로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나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니우다.」

예순 일여덟살 가량 나뉘는 사나이는 고개를 저어보이고는

「해녀장이우다.」

했다.

아흔 한 살의 원로 해녀가 세상을 떠나, 마을의 모든 해녀들이 모여서 장사를 치른다는 것이었다.

75) 최현식, 「夾竹桃」, 『먼 산』(正宇社, 1994), p.237.

76) 최현식, 「紅裳」, 앞의 책, p.231.

요 세상 살단 사름
무신 일로 죽었는고
에행어야 어화로세
이제 가른 어느제 오코
한번 가른 못 올 절가
에행어야 어화로세...

먹이며 받으며 출렁이는 노랫소리는 무척 낭랑하고 장렬은 어느 한구석도 드티질 않는 정연함이었다.⁷⁷⁾

나는 수선화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제주도의 수선화를 맨먼저 발견한 사람이 완당 김정희 선생이었는데요. 그전까진 중국에만 있는 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완당 선생이 제주에 유배되어 와서 우리나라에도 수선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군요. <완당집>이라는 책에 제주 수선화를 예찬한 글이 있는데...」

나는 말하고 취기를 가다듬어 이런 뜻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수선화의 개화는 정월 말로부터 이월 초에 비롯 삼월까지 이르는데, 이때는 산야나 밭둑이 모두 이것으로 가득 차 만만함이 백설이 대지를 덮어 쌓인 것과도 같아 동문 밖이나 서문 밖이나 어디를 가든지 모두 그런 화경(花景)을 이루고 있어 바라보기에 눈이 부족한 형편으로, 눈만 떠도 눈속에까지 하얀 수선화가 가득 찬 듯하다.

「완당 선생이 유배되어 와서 사신 곳이 어디지요?」

조마담이 물었다.

「대정(大靜)꽃 아시지? 산방산(山房山)기슭의... 갇힌 몸으로 구년간 살면서 그 신틸을 완성했대요. 수선화 외에도 한란을 발견해서 이것이 난초라고, 섬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⁷⁸⁾

「참 좋네요.」 맑은 눈들에 정채를 띠우며 탄성이다.

「한라산은 이 고장 사람들의 믿음이고 희망이고 사랑이니까...」 나는 산을 놓고 조금 우쭐거리는 기분이 되는 것을 참지 못했다.⁷⁹⁾

위의 예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작가는 제주 잠녀들의 생활상, 제주도의 식생활과 풍속, 제주민요 등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 또 완당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시절이나 제주도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품 속에 배치시켜놓음으로써 현지민 못지 않은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제주도에 대한 지식들을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우쭐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77) 최현식, 「먼 산, 앞의 책, p.42.

78) 최현식, 위의 책, p.61.

79) 최현식, 「紅裳」, 앞의 책, p.226.

이는 제주도에 정착해 오래 생활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외지인이지만 제주도에 정착해 살아오는 동안 제주사람들처럼 삶의 한부분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풍속, 역사 등에 동화되어 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방언의 수용

최현식은 제주도 방언을 가급적 작품 속에 활용하려 한다. 작가 자신은 함경도가 고향이지만 아내나 자식, 작가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이다. 작가의 신변과 실제적인 체험을 소재로 작품을 쓰고 있는 최현식으로서 제주도 방언의 작품 속 수용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夾竹桃」의 경우 작품을 쓸 때 제주도 사람의 자문을 많이 받아 세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⁸⁰⁾는 작가의 고백처럼 제주도방언을 완전히 이해하고 작품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윤 역시 최현식의 제주도방언 수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방언 수용양상은 그의 ‘신제주인’ ‘반제주인’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최현식은, 작품 창작에 본격적으로 제주도방언을 활용한 최초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신제주인’ 또는 ‘반제주인’이라는 점을 작품에서 방언의 활용을 통해 적절히 나타냄으로써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의 사용 문제 등에서 어색한 활용이 엿보인다. 그리고 최현식 소설에서는 지문(地文)이 아닌 작중인물의 대화에서만 제주도방언이 구사되고 있다. 그것은 최현식의 경우 제주도방언이 그의 언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제주도방언을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현식은 제주도방언을 이해만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끼던 다른 본토 출신들과는 다르지만,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⁸¹⁾

최현식의 작품 대부분에서 작중의 ‘나’는 제주도방언을 거의 쓰지 않는다. 대신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제주도 사람이거나 제주도에 태어난 작중 인물의 자식일 경우 상대방의 이야기는 제주도 방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아빠두 어릴 때 손톱에 봉선화물 들었구나”

하고 나는 한동안의 침묵을 헐었다.

“아빠두? 정말이우과?”

“정말 아니구. 함경도 아빠 고향선 봉선화물을 봉재물이라구 했었지. 사촌누님들, 너

80) 최현식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81)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 『耽羅文化』 제17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p.93.

의 고모님들이었지. 손톱에 물이 곱게 들자면 한참 자구나야 한다구 했거덩"
 “고모님들 예뻐수과?”
 “암, 모두 미인이었지. 남남북녀라지 않아”⁸²⁾

「봉선화」의 일부분이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제주도방언을 쓰지 않는다. 자식들의 대답은 제주도방언이다. 이 작품의 예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에서도 이와같은 경향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화 받음서. 목욕탕집 할아방 답답수다」
 나는 아내가 건네 주는 수화기를 받았다.
 「나, 송대종이우다」
 언제나처럼 걸걸한 목청으로 이 쪽의 <네> 대답을 기다렸다가,
 「바둑 한 판 안두시렵니까?」
 표준말로 언성이 부드러워졌다.
 「네, 그러지요. 점심을 받고 앉았는데요… 끝내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점심요?」
 「네, 어떻하지요?」
 「그럼, 다리목에서 기다리쿠다」⁸³⁾

1983년에 발표된 「용내風景」⁸⁴⁾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에서도 話者인 ‘나’와 상대방의 대화는 표준어와 사투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신문사 국장 출신으로 실직자다. 역시 작가의 분신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제주도 사람인 ‘송대종’은 70세 노인으로서 20여년 동안 용내마을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나’가 실직 후 놀면서 늘어나기만 하는 체중을 줄여 볼 요량으로 새벽목욕을 나가면서 가까워져 바둑친구가 된다. 이 인용문에서도 보듯, 話者인 ‘나’는 표준어를 쓰고 있는 반면 아내와 ‘송대종’은 제주도 방언을 구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작가가 제주도방언을 작품에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신변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내는 사소실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작가의 제주도방언 수용은 이해하기조차 힘들어하는 다른 본토 출신 작가들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것의 구사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40년 가까이 제주도 생활을 해온 제주사람으로서의 입장과 아직도 망향에 젖어 사는 외지인으로서의 입장이 최현식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례라 할 수 있다.

82) 최현식, 「봉선화」, 『먼 산』(正宇社, 1994), p.166.

83) 최현식, 「용내風景」, 『黑猫日記』(創元社, 1985), p.247.

84) 이 작품은 1983년 당시 「용천탕 挿話」로 발표되었으나 작품집 『黑猫日記』 수록시 「용내 風景」으로 改題되었다.

3) 제주개발에 대한 비판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가는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강렬한 어조로 비판한다. 작품을 통해 보여지는 그의 제주도개발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부정적이다.

흔히들 낙원같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제주도두 많이 오염돼버렸다는 소식입니다. 기생파티니 뭐니루요.⁸⁵⁾

높은 소득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서귀포 밀감봄이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 돈깨나 쥐게되니 한구석에서 썩어가기 시작했다. 낭비와 허세가 판을 친다. 널리 알려졌던 서귀포 사람들의 순박이 부셔져 버리고 대신 거드름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무지 말이다.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져야 할 명예가 짓밟히고 돈이 만사를 누르고 섰다. 굶직한 도박들과 타락한 술자리들 말이다.⁸⁶⁾

제주에도 어마어마한 높이의 호텔이 생겨 이른바 기생파티라는 것도 들어와 흥청거리고 있고 호텔이라는 것이 매춘관광의 성채, 가난한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런 수모로 벌어들여 잡는다는 행복도 알아볼 수 있는 것.⁸⁷⁾

최현식은 제주도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제주도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본다. 관광정책이 실시되면서 호텔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매춘관광, 기생파티 등 타락한 술자리, 도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70년대 들어 일게 된 감귤봄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순박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강한 비판은 언론인으로서의 기질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기에는 외지인의 시각이 엄존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가 제주도에 처음 도착해서 느낀 제주도의 순수성이 무너져가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인 것이다. 반면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이건, 정말 신선놀음이군요. 제주 분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알만 하군요”

P교수가 입을 열었다.

“신선놀음요? 호강스런 얘기 마십시오. 요즘 농촌 사정 말이 아닙니다”

내가 대꾸해 준 말이였다.

“농촌 사정, 누군 모릅니까. 그래두 제주도는 밀감밭이니 바나나니... 부잣소리 듣는 편이 아닌가요?”

“말감밭요? 바나나 하우스를 가진 농사꾼이 몇 사람이나 되는 줄 아세요. 좀중한 자

85) 최현식, 『菊花베개』, 『黑猫日記』(創元社, 1985), p.39.

86) 최현식, 위의 책, p.47.

87) 최현식, 위의 책, p.61.

본으론 택두 없는 일이에요. 땅은 육지 투기꾼들이 들어와 죄다 차지해 버리구... 농민
들 설 땅이 어디 있어요”

내 언성이 강하게 들렸던 모양이다.

“요란하오. 연설 그만하구... 술이나 드오”⁸⁸⁾

「細花里에서」의 주인공 ‘나’와 영등굿을 보기 위해 제주도에 온 P교수 사이에 전개된 대화의 일부분이다. P교수는 같은 고향 출신이다. 바다가 보이는 포구 쪽에 마을 잠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점에서 해산물에 소주를 시키자 외지에서 온 P교수는 이러한 술 좌석을 ‘신선놀음’에 빗댄다. 낭만적인 시각이다. 이 시선에는 제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작중의 ‘나’는 다르다. 제주도의 현실에 대해 피상적이기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비판도 한다. 감귤 재배로 제주도 농촌이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본을 가지지 못한 빈농들이 많은데다 투기바람으로 땅을 뺏긴 농민들의 처지를 강한 어조로 토로하는 것이다. 게다가 힘든 물질로 획득한 해산물을 노점에서 직접 팔아야 하는 잠녀들의 현실이 작중의 ‘나’에게는 느껴지고 있다. 이는 제주 현지인의 시각과도 같다. 외지인이지만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살아오고 있어서 이제 이른바 ‘新濟州人’이 된 작가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4) ‘4·3’에 대한 인식

최현식은 작품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향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는다. 제주도에 정착한 지 10년 후인 1971년에 발표한 「겨울소나기」를 통해 제주도 사람들의 기질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한 사나이의 죽음을 두고 신문기사 형태로 사건을 추적해 가며 씌어진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제주사람들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거리 사람들의 기질을 요약해서 말하면 <근면> <약간의 표현성> 그리고 <협동 정신의 결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십수년 이래로 외지사람들은 기질 중 또하나의 단점으로 <폐쇄적이다>를 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의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외면이 유별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저 이십년 전의 소요때 삼만의 희생을 저질렀다는 유혈의 자국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분별이 안된 날죽음의 판국에서는 <모른다>가 최선의 처세요령이 되는 수밖에. 이러한 소외풍조는 육십구년의 그림을 맞는 이즈음에도 별로 달라진 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⁸⁹⁾

88) 최현식, 「細花里에서」, 『먼 산』(正字社, 1994), p.206.

89) 최현식, 「겨울소나기」, 『紅蓑』(현대문학사, 1973), pp.246~247.

그럼에도 이 거리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청결과 행복을 위해 그것들을 잡아서 지적하고 시정하는 일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단합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차피 빌어먹을... 될대로 되라> 그런 오랜 습관(자학적)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체념,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흐름의 바쁨 속에 떠밀려간다는 타성 때문일 것이다.

어저께까지 그토록의 관심거리였던 한 시민의 괴이한 죽음은 이미 과거의 일로서 죽은 자도 죄있는 자도 잊혀지고 만 오늘의 이 거리. 앞에서 말한 체념과 타성을 죽히 알 수 있을 것이다.⁹⁰⁾

위 작품에서 작가는 제주도 사람들의 기질로 근면성, 폐쇄성, 체념과 타성 등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외지인들이 제주도 사람들의 기질로 생각하는 순박성 같은 면은 꼽지 않고 있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48년에 있었던 '4·3'을 이해하고서야 작가는 제주도 사람들이 왜 폐쇄적이고 체념적인 기질을 보이는지 알게 된다. 이데올로기를 몰랐던 무고한 양민들까지 희생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모른다'는 말만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처세방법이었고 이때의恨이 오랫동안 이어져 제주도사람들의 습성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작가의 해석이다.

「細花里에서」에서 작가는 고향 선배인 P교수와 작중 話者인 나 사이의 대화를 통해 '4·3'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4·3사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얼마전 이곳 오랜 친구와 둘이서 술을 나누다가 말다툼한 일이 있었지요”

“말다툼이라니요”

“처음 화제는 광주사태였지요. 광주항쟁의 한, 그 웅어릴 푸는 일이 이 나라의 당면 과업의 급선무라고, 그 한들을 풀어주지 못하면 화합이구, 민주화구, 모두가 허사로 끝나 버릴 것이라고, 이런 말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대작하고 있던 친구, 광주사태요? 묻더니, 제주도 4·3사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나 다름없지요, 하곤 정색을 해보이는 거 아니에요”

“새발의 피나 다름없다구요?”

P교수가 물었다. 놀라는 모양으로 끊어지는 언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태규모나 희생자의 수효로 보면 새발의 피나 다름없다구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제주도의 4·3사태는 대한민국 수립 전인 미국 군정하에서 일어난 사태이고, 광주는 대한민국 수립 후, 그것도 32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난 사태니까, 해석이 달라져야만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광주를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으로 규정한다면 4·3사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종의 전쟁터로 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데올로긴 무슨 썩어빠진 이데올로깁니까, 낫엔 대한민국, 밤엔 인민공화국인데, 야밤중에 쳐들어와 양식을 내놓으라는데, 어떡합니까, 거절하면 죽게되니, 내 주지요, 그러면 이튿날은 폭도에게 양식을 주었다고, 또 죽이는 판국인데, 무슨 놈의 좌익이구, 우익은 또 무슨 놈의 우익이란 말이에요, 하고 말투가 거칠어지더군요”

90) 최현식, 위의 책, p.294.

<중략>

“술맛 잡쳤겠군요”

P교수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어 보였다.

“잡치다니요... 4·3사건 이야기, 처음 가져 보는 좌석이 아니지요. 그래, 하하 또 그 일루해서, 40년 전의 그 피맺힌 한으로 해서 이마에 핏대를 세우는 것이구나, 생각이 자, 잔을 돌려 술을 권했던 거지요”⁹¹⁾

작중 話者인 ‘나’는 洪原이 고향인 실향민으로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영등굿 구경을 위해 제주도에 온 고향 선배에게 제주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주도의 ‘4·3’을 설명한다. 제주도 친구는 ‘4·3’ 때 어머니와 형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즉결처분 당했다. 5년 후 헌병 하사관이 된 친구는 총살을 지휘한 경찰관을 죽일 결심을 하지만 경찰관 역시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술만 퍼먹구, 눈이 툭툭 붓게 울곤’⁹²⁾ 헤어졌었다. 그후 경찰관은 갈치잡일 나갔다가 조난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나’는 이런 친구의 아픈 기억을 통해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인과응보론과 恨이라는 것은 참 오래간다는 것을 배운다.

작가는 제주도의 ‘4·3’을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사람들의 체험 또는 전해들은 이야기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때문에 광주의 5·18을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으로 규정하는 반면, ‘4·3’은 미군정 하에서 일어난 사태이므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종의 전쟁터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가의 시선은 현지민들이 겪었던 ‘4·3’을 전해듣고서야 그 恨을 이해하고 비로소 제주도 사람들의 기질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처음에 가졌던 제주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4·3’에 대한 인식들은 그가 제주도의 ‘4·3’을 이해하고서야 해소된다. 이는 최현식이 濟州人化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소설적 경향

1) 사소설과 심경소설

1920년 말에서 1921년 초 일본 문단에서 당시에 주목받고 있던 자전적 성향의 작품들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사소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태준, 박태원, 안희남 등 1920, 30년대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1960년대 손창섭 등 전후작가들이 사소설의 양식을 취하면서 다시 사소설론이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사소설은 작가가 자기의 사생활을 그린 소설을 말한다. 한용환의 『소설학사

91) 최현식, 『細花里에서』, 『먼 산』(正宇社, 1994), pp.196~197.

92) 최현식, 위의 책, p.198.

전』⁹³⁾에 따르면, 사소설은 단순히 작가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고백의 형태로 가차없이 폭로하는 소설이다. 자신들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념까지도 드러내 놓고, 거기에서 일종의 자학적 쾌감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사소설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형식적 장치들이 정립되어 있다. 추악한 인간으로서의 작가, 추악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진실한 작가, 예술과 생활의 일치를 추구하는 작가 등이 그것이다.

『日本文學史』에서 小西甚一은 “자연주의 소설이 좁은 자기 신변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작가의 단편적인 사생활을 소재로 한 단편이 생겨나고, 특히 사건을 서술하기보다는 심경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소설이라든가 심경소설로 불린다.”⁹⁴⁾고 사소설을 풀이하고 있다. 위의 진술에서 보면 ‘心境小説’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흔히 사소설에는 자기 폭로의 소설과는 또다른 유형으로 심경소설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심경소설은 나카무라 무라오(中村武羅雄)의 평론 「本格소설과 심경소설」(1924)이 발표되면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심경소설은 일인칭으로 서술되면서 묘사된 내용보다는 작가의 심경에 보다 많은 흥미가 있는 소설이다.

한용환은 심경소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본의 근대 문학 연구에서 통용되는 사소설의 제보 속에는,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금기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 폭로의 소설과는 다른 종류의 소설들도 포함된다. 그 두 번째 유형은 작가 자신의 사사로운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작가의 감춰진 죄악을 까발리는 대신에 보통 사소한 신변사의 의미를 반추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소설들을 가리켜서 어떤 비평가들은 ‘심경소설’이라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한다.⁹⁵⁾

위의 견해에 따르면 심경소설에는 전형적 사소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회와 대립하는 내향성의 자아 대신에 범상한 사물과의 접촉에서 시적 발견의 흥분을 체험하는 심미적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본의 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는 그의 『私小説論』에서 사소설을 자신의 정직한 고백을 소설체로 이어간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서양의 사소설 개념이 일본에 전달되어진 후 변형되었음을 주지시킨다. 서양의 경우 사소설 작가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동화된 후 ‘사회화된 나’로서 자신의 성찰과 순화에 눈을 뜬 경우다. 반면 일본은 사상을 받아들여 취한 것이 아니라 감상을 받아들였고 고립에 처해 있는 작가 자신을 기법상으로 탁월하게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사소설은 1920년대 순수소설론의 다른 표현으로 실생활에 관한 고백과 경험담은 결국 ‘나’의 순화로 이어진다. 결

93) 한용환, 『소설학사전』(고려원, 1992).

94) 小西甚一 著·김분숙 譯, 『일本文학사』(고려원, 1995), p.240.

95) 한용환, 앞의 책, p.201.

국 사소설 작가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외로운 사색에 임하는 미학적 은둔자의 일종이며, 그러한 사색은 사회화된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나의 순화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사소설

한국의 경우 사소설은 뚜렷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논자(論者)에 따라 신변소설의 영역으로까지 폭넓게 이해되기도 한다. 조동일은 사소설을 신변소설의 한 부류로 본다. “일인칭으로든 삼인칭으로든 작가를 대신하도록 설정된 인물은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몰리지는 않으니 자기 나름대로 견문하고, 생각하고, 상상한 바를 장황하게 서술하는 재량권을 가졌다. 그래서 소설을 수필처럼 만들어 작품외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되 그 모습을 단순화시키기 일췌”⁹⁶⁾라며 사소설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조동일은 안희남, 이효석, 박태원, 이태준 등의 소설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신변소설이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변사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심경의 토로에 그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심경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사소설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있는 셈이다.

한용환은 1920, 30년대의 한국소설에서 일본의 사소설의 영향이 어느정도 감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30년대의 평단에서 심경소설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당시의 작가들은 한국판 사소설 혹은 그에 근접한 형태의 소설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실제로 ‘순수문학’을 고집한 작가들, 예컨대 이태준, 박태원, 안희남 등의 작품 가운데에는 일본 사소설의 형식적 관습에 비추어 해독 가능한 작품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안희남은 자신의 신변사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강인한 검증을 통해 反허구의 자화상 창출이라는 사소설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추구했으며 그러한 경향은 「투계(鬪鷄)」(1940) 등의 작품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런가 하면 순수문학과는 다른 입장에서 있던 작가들에게서도 사소설적 경향이 발견된다. 「처(妻)를 때리고」(1937), 「춤추는 남편」(1937), 「제퇴선(祭退膳)」(1937)과 같은 김남천의 작품들, 그 자신이 ‘자기고발’의 문학이라고 명명한 이 작품들은 사소설의 관습에 포함되는 체험과 관찰의 양식을 드러내고 있다.⁹⁷⁾

사소설은 1960년대에 다시 논의된다. 윤병로는 1966년에 발표된 김동리의 「松楸에서」와 당시 발표된 손창섭의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사소설이 자리잡혀가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다.

9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지식산업사, 1982), p.458

97) 한용환, 앞의 책, pp.204~205.

私小説이라면 無條件 기피하던 純粹의 舊習에서 벗어나 大衆讀者와의 넓은 共同廣場을 위해서 발버둥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겨우 자리 잡혀가는 사소설의 흐름이나 企圖가 높은 藝術性을 외면한다면 큰일이다. 더욱이 그것이 바로 通俗的인 大衆讀者의 口味나 日本의 그것을 그대로 模倣하는데 그친다면 더욱 禁物이다.⁹⁸⁾

당시 김우중은 사소설이 다시 쓰이는 이유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전후작가들이 자신의 자화상부터 차분히 그려나가게 되면서라고 풀이한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障壁과 對面해 온 한국적 운명의 囚人들, 이 틈바구니에서 작가들은 자기대로의 出口를 찾아 跳躍飛翔의 冒險을 반복해 봤지만 그것에 自信을 갖고 자기 境地를 완성해 나갔다는 작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떤 作家들은 차라리 잔디 위에 누워 「純粹」의 牧歌나 부르며 그와 달리 현실속에서 泥田 鬪狗하는 작가들을 냉소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迷途箱子속에서 안타까이 출구를 찾아 헤매는 쥐새끼처럼 시행착오만을 반복해 온 戰後作壇 <중략> 그러므로 비록 자기 자신의 좀더 밀착된 體驗世界로 作品世界를 한정시켜 나가더라는, 그것이 個人的 自敘傳이나 經驗談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方法論의 문제와 그 作家의 力量이 그곳에 밀바탕되어야 할 것이다.⁹⁹⁾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의 경우 1920, 30년대 일부 작가들이 사소설의 형식을 취하다가 다시 1960년대 들어 전후작가들이 잠깐 사소설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소설의 수용



최현식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단편으로 작가의 신변사와 자신의 사사로운 경험이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작품에서 유지하고 있는 시점 역시 1인칭이 대부분이다. 사건의 갈등과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건으로 비롯되는 심경묘사에 무게가 더 실릴 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작가 스스로가 표현이 詩的이고 간결한 것, 서정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써 나간다고 고백할 만큼 묘사를 중시한다. 이렇게 볼 때 최현식의 작품들은 사소설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가의 심경묘사에 더 관심이 있는 심경소설에 가깝게 접근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소설이 지향하는 것처럼 작가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을 고백의 형태로 가차없이 폭로하고 수치스러운 상념까지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상념들을 서정적인 멋과 풍류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현식이다. 1975년에 발표된 「賞蘭抄」는 이를 잘

98) 윤병로, 「자리잡히는 사소설」, 『현대작가론』(二友출판사, 1985), pp.319~320.

99) 김우중, 「私小説의 方法論」, 『현대문학』 1966년 3월호, p.233.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 속의 나는 예전에 죽란을 선물했던 J시의 이 여사로부터 육지에 여행 나올 일이 있으면 난꽃을 불검 들러달라는 초대를 받는다. 이 여사는 미인에 불심이 깊고 난 키우기에 정성을 기울일 정도로 멋을 아는 여자다. 나는 죽란을 핑계로 이 여사와의 멋진 하룻밤을 기대하며 일부러 J시로 향한다.

출발부터가 개운한 것이 못되었다. 편지를 받고 사흘 동안 결심을 못하고 있다가 주말을 택해 떠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결심한 뒤에도 어쩐지 선후가 맞물리지 않는 일 같지만 해서 망설여졌다. <...육지에 여행 나오실 일은 없지요. 충심으로 초대합니다> 나올 기회가 있으면 겸사로 들러주면 싶다는 것이다. ...일부러 와 줄 것은...그런 함축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부러 찾아나섰다. 어떻게 보면 남자의 체면에 관계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년래 소식이 끊어진 여자가 아닌가. 이걸 분명히 멋쩍은 일이다.

그러나 난을 놓고서의 무상의 행위...그렇게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무상, 그것이 진심이다. 그렇다면 아내에게는 부산까지의 출장이라고 거짓말은... 그 위장은?

(진솔하게 말해서 무상의 행위는 거짓말이고... 손이 닿게 될지도 모르는...쾌락의 가능성으로 해서...)¹⁰⁰⁾

이 여사를 찾아가는 이유를 놓고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속으로 쾌락을 생각하면서도 애써 부인하려는 나의 고민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나의 의도는 실패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어울릴만 하다. 또 '어젯밤, 이불 속에 들어, 마루청에 소리를 죽인 발걸음이 다가올 것 같은 목마름으로 잠을 설치고 있었던 자신을 웃으며 푸 담배연기를 내뿜었다'¹⁰¹⁾는 대목에서는 수치스런 상념을 까발겨 옹금하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웃음을 띠게 만든다.

최현식은 어렸을 때부터 접해온 일본문학의 영향으로 사소설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성향과 연결되어 창작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나타나는 사소설적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소설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것과 주변 이야기, 즉 간접체험이 바탕이 되지요. 또 여기에 읽는 재미가 곁들여져야 합니다. 나는 철저히 그것을 생각하며 소설을 써요. 사소설은 이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하지요. 표현이 쉽고 절실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¹⁰²⁾

100) 최현식, 『賞蘭抄』, 『먼 산』(正宇社, 1994), p.222.

101) 최현식, 위의 책, p.232.

102) 최현식의 증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자택, 1998년 2월 4일.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사소설 양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에게는 사소설이 '표현이 쉽고 절실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최현식의 사소설은 구체적으로 보면 심경소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완전히 사소설에 융화되어 그 형식으로 작품을 써간다고 보다는 사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작품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정성의 추구

최현식은 기질적으로 서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탐구 보다는 포용을 중요시하고 주제의 전개에 치중하기보다는 일상을 소재로 시적 분위기 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그의 작품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의 작품에서는 현실적 고뇌를 찾을 수 없고 대신 시적인 서정성이 풍부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과 친숙한 환경에서 자란 그의 유소년기, 6·25이후 이념을 전적으로 외면하게 된 그의 성장 과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작가 스스로도 “서정성과 부닥쳐야 작품이 된다”고 고백할 만큼 서정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작품은 예술이어야 한다는 감성론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의 서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宋夏燮은 서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설 속에 나타나는 서정성은, 인간의 외부세계를 작가가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용적 개념이 될 것이며 서술에 독백적 표현을 쓰는 것이 형식적 개념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우리 소설문학에서의 서정성은 향토성·순수성·원시성 등을 표현한 소설들을 지칭하고 있다. 李孝石이나 金裕貞, 黃順元, 吳永壽, 金東里 등의 소설이 가지는 다소 감상적이면서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작품이나 인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 표현이 시적 분위기 속에 싸여있는 작품들을 서정적이라고 하고 있다.¹⁰³⁾

최현식의 경우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서정성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 표현이 시적 분위기 속에 싸여있는 특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연배경을 묘사할 때 대상 자체에 몰입하면서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 느낌을 서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달빛에 젖은 그림자가 여릿하다. 목덜미에서 등으로 흐른 가냘픈 선(線)이 차다. 벌레소리를 헤아리고 있다는 듯 연방 귀를 벌름거린다.

103) 송하섭, 『韓國現代小說의 抒情性 研究』(단국대학교출판부, 1989), pp.10~13.

어지간히 시간이 흘렀다. 한낮을 방불케 하는 월광이다. 풍성히 흐르는 강물과 그 언덕에서는 술한 풀잎들과 화판(花瓣)들은 내일 아침의 이슬을 배태하기 시작했다.¹⁰⁴⁾

그것은 분명히 창자 속에서 끌어올리는 소리였다. 고통보다도 더한 무엇을 품은 애처로움이었다. 피를 흘리면서 달아났으니 어느 풀숲에 들어앉아 오래 신음하다가 끝내는 뺨고 말았으리라던 그것의 울음소리일지도 몰랐다.¹⁰⁵⁾

안개는 해안선을 완전히 침범하고 거리를 둘러쌌다. 바다는 가득찬 밀물인 듯 해조음(海潮音)소리가 무거웠다.¹⁰⁶⁾

앞의 인용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최현식이 묘사하는 배경은 시적, 수필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작가는 이러한 표현으로 실질적인 묘사보다도 장면의 분위기 조성에 더 힘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작품 속 등장인물이 대부분 낭만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고 화해적이라는 점에서 그의 서정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라산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자 어머니가 고향 산에서祭를 올리며 정성을 기울였던 것처럼 아들을 얻게 해주십사 기도를 올리는 「셀비어」의 주인공이나 신혼여행 온 육촌누이 내외를 영화 속 주인공들에 빗대며 지순함을 떠올리는 「紅裳」의 주인공, 첫 제비가 온 것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내를 두고 “첫 눈, 첫 참외, 첫 제비에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법인가. 자연에 대한 모독이야”라고 되짜주려는 「그날의 달빛은」의 주인공 등 최현식의 작품 속 인물들은 한결같이 낭만적인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

작가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은 난초나 수석, 그림 등 자연과의 교류를 취미삼거나 술로 그리움이나 아픔을 달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인물의 낭만적 감성은 술과 아내를 제외한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져있다.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등의 낭만적 풍류가 빈번하다.

또한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를 보인다. 「봉선화」의 주인공 나는 퇴직언론인이다. 가슴에 못이 박혔는데 갚아야지 않겠느냐는 동료 문인들에게 나는 용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아버지의 여름」의 주인공 나 역시 6·25 때 죄없는 아버지를 밀고해 행방불명이 되게 한 십장아저씨를 보복은 보복을 되풀이하게 될 뿐이라며 용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역경에서도 화해하고 용서하는 인물들은 소설을 서정적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옛이야기나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데서도 서정성을 읽어낼 수가 있다. 최현식의 작품은 대부분이 향수가 짙게 배어 있으며 회고적이다. 「해바라기의 追憶」이나 「안개 속에」, 「娘郷」, 「紅裳」, 「望郷三題」, 「셀비어」, 「꽃履歷」, 「먼 山」 등의 작품들은 고향에

104) 최현식, 「노루」, 『紅裳』(현대문학사, 1973), p.56.

105) 최현식, 위의 책, p.66.

106) 최현식, 「紅裳」, 앞의 책, p.232.

대한 그리움과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다. 추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정을 끌어내는 것이고 따라서 작가의 서정성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설에서 동물에게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과 동격화한다는 뜻이 되고, 인간의 따뜻한 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¹⁰⁷⁾이라는 송하섭의 정의처럼 최현식 역시 개나 말 등을 작품에 등장시켜 인간의 애정이나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인간의 원시적 성욕을 표현해내기도 한다.

말 울음소리. 그 힘찬 음조가 수놓이 분명할 게라고 생각되자, 춘심이의 뇌리를 어떤 상념이 스쳐간 것이었다. —목덜미, 앞가슴, 그리고 술이 좋은 꼬리며 할 것 없이 한 군데도 나무랄 데가 없는 꼭 잡힌 균형에다, 온몸에 윤기가 넘치는 수수한 체구의 수놓...

—나무랄 데가 없는 꼭 잡힌 몸매라는 점에서는 물숨이도...
춘심이는 입가에 띄웠던 웃음을 거두었다.¹⁰⁸⁾

「夾竹桃」의 일부분이다. 방목장에서 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생활하고 있는 물숨이에게서 느끼는 춘심이의 감정은 수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고조된다. 지난번에는 물숨이의 성적 욕구를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받아주리라는 마음속 생각이 있던 차였다. 이처럼 춘심이는 물숨이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말울음 소리에 빗대어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娘郷」의 소년과 소녀가 벌이는 性戲도 동물을 통해 묘사된다.

들이는 노새와 적당한 거리를 놓고 쭈그리고 앉았다. 가매는 노새의 그 힘줄이 왕성 한 복부에 눈길을 붓고 있는데 좀체로 움직일 염을 내지 않는다.

소년은 이렇듯 무엇엔가에 사로잡혀있는 가매의 얼굴을 훑쳐보다가 문득 엉뚱한 사고(思考)를 일삼았다.

「야야, 난 알아진다. 너 무스걸 보구 있는지 난 다 알았다.」 소년은 무슨 큰 발견이나 했다는 듯 호들갑스레 뇌까리고 입가에다 멸시를 뜻하는 냉소를 담아 가매에게 던져준 것이었다.

다음 순간, 소년은 선뜻 놀라고, 스스로를(노새의 섹스에다 결부시킨) 아프게 뉘우쳤다.¹⁰⁹⁾

가매는 소년보다 두 살 위로 性에 눈을 떠가고 있어 아직은 순진하기만 한 소년을 대상으로 性戲를 곧잘 벌인다. 같이 놀아줄 상대가 가매밖에 없는 소년은 가매와 어울리면

107) 송하섭, 앞의 책, p.187.

108) 최현식, 「夾竹桃」, 『먼 산』(正宇社, 1994), p.240.

109) 최현식, 「娘郷」, 『紅蓼』(현대문학사, 1973), p.203.

서 점점 性에 눈을 떠간다.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노새와 가매를 연결시켜 性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의 달빛은」의 화자인 '나'는 집에서 기르는 개 루비의 수태 때문에 고민 중이다. 발정이 찾아졌지만 마땅한 상대를 구하지 못하다 새벽걸음까지 하며 춘추선생집 수컷과 짝을 맺어준다. 사람도 아닌 개의 짝짓기에 고심하는 話者의 모습에서 순진함과 동시에 따뜻한 情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고양이들의 어울림에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작중 話者의 애정관계를 빗대고 있는 「黑苗日記」 또한 최현식의 이러한 서정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V. 결론

이 연구는 최현식의 생애를 염두에 두면서 그의 문학이 어떤 변모양상을 거쳤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의 문학이 가지는 특성 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최현식의 생애는 굴곡이 많은 편이다. 성장기를 일제시대 때 보내 민족의 의미를 모른 채 일본 문화에 익숙해 지냈고 해방 후 민족에 대해 눈 뜰 때에는 6·25가 발발, 고향을 상실했다. 제주도에 정착한 후에도 강제해직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그의 굴곡진 삶들은 최현식의 문학적 특징을 이루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현식의 생애를 바탕으로 살펴본 문학적 변모양상은 다음과 같다. 변모의 기점은 문단에 등단한 1956년부터 1961년 제주도로의 정착 전까지를 제1기로, 제주도에 정착한 후를 제2기로, 실직 후를 제3기로 설정했다.

제1기 때 최현식은 서정적인 묘사와 문학의 순수주의에 많은 무게를 둔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6·25 직후 이데올로기로부터 도피하여 이념적 경향을 외면한 채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개인의 실존을 운위하기도 했던 당시 문단의 한 경향과도 맞물린다.

아울러 군에서 제대하면서 최현식은 군체험을 바탕으로 소설화 작업을 한다. 이 시기에 그는 「돼지와 SMG」, 「435 OP의 가족」 등 자신의 작품성향에 비해 다소 예외적이라 할 만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분석적인 비판이 아닌 에피소드적인 경향으로 흘러버린다. 이는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가벼운 스케치를 즐기는 작가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또 최현식은 이때부터 사소설을 자신의 문학들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서정적 문체에서 탈피, 주관적인 서술과 의식의 흐름에 초점이 주어지는 문체로의 전환을 시도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제2기에 발표된 작품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실향의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다. 고향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라는 공간은 작가에게 실향의 아픔과 망향을 강하게 느끼도록 했다. 이러한 그리움과 아픔이 작품화되어 이 시기에 발표된 「안개 속에」, 「紅裳」, 「셀비어」, 「먼 산」 등 그의 작품들은 망향과 실향의 아픔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현식은 제주도에 정착한 후 자신의 문체를 확립한다. 이 시기에는 군제대 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사소설보다 심경소설에 더 가까워졌고 서정적인 그의 문체의 틀이 잡혀진 것이다.

제3기에서 최현식은 실직의 충격을 딛고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늘의 椅子」, 「아버지의 여름」, 「봉선화」 등 이 시기의 작품들은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서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그의 낙천적인 기질과 모든 것을 포용하려는 유연한 인생관에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에 접한 최현식은 이 시기 老年의 상실감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꾸준히 작품화하는 한편 최근 들어서는 수필에 근접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1인칭으로 쓰여지는 그의 소

설들에서 화자인 '나'가 실제의 '나'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필에 대한 작가의 관심, 굴곡진 삶을 보낸 老年의 달관된 듯한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현식은 40년 가까이 제주도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만큼 제주도를 보는 시각도 현지인의 시각과 외지인의 시각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첫째 제주의 자연과 풍속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는 제주도의 자연을 바라봄에 있어 외견상으로만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고 제주도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자연을 관찰, 서정적인 문체로 묘사해 낸다. 이는 제주의 자연과 풍속에 동화된 新濟州人의 시각으로 보여진다.

둘째, 제주도 방언의 수용문제다. 그의 작품에는 제주도 방언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 방언은 주로 대화속에 인용되는데, 작가의 분신으로 보이는 인물은 함경도 방언과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가 고향인 상대방의 이야기에선 제주도 방언이 인용된다. 이는 자신의 신변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내는 사소설적 특수성과 그의 半濟州人으로서의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주개발에 관한 시각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그의 제주도 개발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부정적이다. 개발과 관광정책이 실시되면서 매춘관광, 타락한 술자리 등 제주도가 망가지고 있고 70년대 들어 인 감귤붐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순박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新濟州人으로서의 시각이다.

넷째, 제주인들과 '4·3'을 보는 작가의 시선이다. 근면하지만 폐쇄적이고 체념과 타성이 많다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지만 '4·3'에 대한 이해가 있을 후 제주도 사람들의 그런 성격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작가는 '4·3'에 대해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종의 전쟁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그 恨을 이해하게 된다. 그가 濟州人化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현식의 소설은 작가의 신변사와 자신의 사사로운 경험이 소재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소설에 가깝다. 하지만 작가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을 고백의 형태로 가차없이 폭로하고 수치스러운 상념까지 드러내 여기서 일종의 자학적 쾌감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소설과 다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소설의 또다른 부류로 일인칭으로 서술되면서 사건으로 비롯되는 심경묘사에 치중하는 심경소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현식은 읽는 재미를 위해 사소설을 택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즉 사소설을 위한 사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소설이 가지는 장점들을 자신의 소설에 적극적으로 활용, 자신만의 독특한 소설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최현식 소설의 또다른 특성은 서정성에 있다. 詩的 분위기에 싸여있는 작가의 문체나 작품을 통해 보여지는 낭만적 감수성, 화해와 용서하는 자세, 낙관론 등은 그의 소설들이 서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요소다.

이 연구는 최현식의 작품 전반에 걸쳐, 작가의 생애에 따른 문학적 변모양상과 특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최현식 문학이 가지는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 정리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최현식 문학과 사소설과의 연관성이 가지는 의미, 제주도에서의 삶과 문학적 성과와의 관련성 등이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



參考文獻

1. 자료

- 최현식. 『紅裳』. 현대문학사, 1973.
———. 『黑猫日記』. 창원사, 1985
———. 『먼 山』. 정우사, 1994.

2. 저서

- 권영민. 『태백산맥 다시 읽기』. 해냄출판사, 1996.
김영화. 『現代作家論』. 도서출판 문장, 1983.
———.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송상일. 『時代와 삶』. 도서출판 문장, 1979.
송하섭. 『한국현대소설의 서정성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9.
윤병로. 『현대작가론』. 이우출판사, 1985.
이대규. 『한국근대귀향소설연구』. 이회문화사, 199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2.
장백일. 『현대수필문학론』. 집문당, 1994.
천이두.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96.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小西甚一 著·김분숙 譯. 『일본문학사』. 고려원, 1995.
保昌正夫 外·고재석 譯. 『일본 현대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1998.
小林秀雄. 『私小説論』(小林秀雄全集 제3권). 新潮社, 1978.
『新潮日本文學小辭典』. 東京 新潮社, 1968.

3. 논문·평론·기타

-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 『탐라문화』 제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김우종. 「사소설의 방법론」, 『현대문학』 1966년 3월호.
송상일. 「제주문학 스케치—삼인 작가의 작품세계」, 『제주문학』 제4호.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부, 1975.
천이두. 「오늘의 삶 속에 투영된 失郷의 아픔」, 『黑猫日記』. 창원사, 1985.
최현식. 「민들레의 뜰」, 『제주문학』 제23집. 제주문인협회, 1993.
中村光夫. 「私小説論 解説」, 『小林秀雄전집 3권』. 新潮社, 1978.

<Summary>

A Study on the Novels by Choi, Hyun-shik

Kim, Kyung-su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hw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how a novelist, Choi, Hyun-shik's literature has been transformed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is literature, bearing his lifetime in mind.

Choi, Hyun-shik was grown up during the age of Japanese colonialism, he had been accustomed to the Japanese culture without any national consciousness. In addition, at the time he began to recognize the meaning of a nation after Korea's liberation, the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 1950 and he lost his hometown. After he settled down in Cheju Island, he suffered from a mandatory discharge. This distorted life of his became one of the main factors which characterized his literature.

Choi, Hyun-shik's changes in literature on the basis of his career are as follows.

His works published from 1956, when he made his debut in letters with a novel, "Noru (Roe deer)" to 1961, when he settled down in Cheju Island put emphasis on lyrical description and purism and after he left the army, he began to make the most of private novels as his standard literary frame. Choi, Hyun-shik's novels have been studded with the nostalgia for his hometown since he settled down in Cheju Island. Besides, during this period, his lyrical style had been got into shape and it became more closer to mental-life novels than to private novels, which he had applied regularly since he left the army. And after that, he got a mandatory discharge and nevertheless, he got the better of the shock of unemployment and tried to keep the appearance of tolerance.

Choi, Hyun-shik has been living there almost for 40 years. That is why he

* This thesis 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has both the aborigines' and outsiders' viewpoint on Cheju Island. He has a new Cheju Islanders' viewpoint assimilated with the nature and customs of Cheju Island by observing the nature of Cheju Island and describing her with the lyrical styles on the basis of his own knowledge on the history and nature of Cheju Island. In his works, he has been making the most of the Cheju dialects comparatively positively, but his usability to command them freely has its certain limits. This is thought to be attributed to the peculiarities of private novels, describing himself realistically and his inclination as a semi-Cheju Islander. Furthermore, he had had a very negative viewpoint as a new Cheju Islander on the development of Cheju Island and after understanding the Riot of April 3, he began to solve his negative viewpoint on the characters of Cheju Islanders. This is a proof that he was in the middle of becoming a new Cheju Islander.

His novels are close to private ones, in that they are mainly dealing with his own business and personal experiences. But, they can be said to be closer to mental-life novels, laying emphasis to the event-oriented psychological description. They are characterized as the formation of his unique novels, utilizing the merits of private novels, not writing for the sake of private novels.

Another characteristic of Choi, Hyun-shik's novels is lyricism. Romantic sensibility, reconciliation, mercy and optimism shown in his styles and novels surrounded by poetic atmosphere can be a good proof of lyricism which is filled with his novels.



崔玄植 年譜

- 1924년 음력 11월28일 함남 홍원 출생.
- 1942년 함흥사범학교 졸업 후 1945년까지 함경남도 북청 후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1947년 국학대학 중퇴.
- 1949년 월간 「三千里」기자.
- 1951년 1·4후퇴로 제주 애월에 피난. 계용묵 주재의 「新文化」편집을 돕고, 「5월의 望樓」, 「頭毛에서」 등 詩作. 「黑珊瑚」동인.
- 1953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1953년 육군 입대. 육군 포병학교를 거쳐 소위로 임관, 28사단 배속 후 한탄강·임진강 일대에서 4년간 군복무.
-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해바라기의 追憶」입선.
- 195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노루」 당선.
- 1958년 육군 중위로 제대.
- 1959년 단편 「棕櫚의 집」(문예), 「435 OP의 가족」(현대문학), 「花子時節」(문학) 발표.
- 1960년 단편 「돼지와 SMG」(새벽) 발표. 중편 「노을 무렵의 嘔吐」를 전남일보에 연재.
- 1961년 제주도에 정착.
- 1962년 단편 「안개 속에」(국민신문), 「夾竹挑」(제주신문) 발표.
- 1963년 장편 「원색의 침묵」을 제주신문에 연재.
- 1965년 제주신문 입사.
- 1970년 단편 「紅裳」, 「娘鄉」을 현대문학에 발표.
- 1971년 단편 「겨울소나기」(현대문학) 발표.
- 1972년 제주도문화상 수상. 「두 낚싯꾼」(월간문학) 발표.
- 1973년 단편 「望鄉三題」(독서신문), 「셀비어」(현대문학) 발표. 첫 작품집 『紅裳』(현대문학사) 출간.
- 1975년 단편 「꽃履歷」(문학사상), 「菊花베개」(현대문학), 「賞蘭抄」(신동아) 발표.
- 1976년 단편 「산나비」(현대문학) 발표.
- 1977년 단편 「세천교」(작품집 『黑猫日記』 수록시 「먼 山」으로 改題)(현대문학), 「嶺-그 달」(한국문학) 발표.
- 1978년 단편 「들녘」(한국문학), 「운다고 先生」(문학사상) 발표.
- 1979년 단편 「黑猫日記」(현대문학) 발표.
- 1980년 제주신문 편집국장 사임. 단편 「어떤 山行」(문학사상) 발표.
- 1981년 단편 「시인의 구두」(문학사상), 단편 「오늘의 椅子」(현대문학) 발표. 한국일보에 「신 풍토기」(제주편) 연재.
- 1982년 단편 「청진동 귀뚜라미」(문학사상), 「故鄉」(한국문학) 발표.
- 1983년 단편 「용천탕 挿話」(작품집 『黑猫日記』 수록시 「용내 風景」으로 改題)(현대문학) 발표.
- 1984년 단편 「달빛」(제주문학), 「쌀물」(제주문학) 발표.
- 1985년 단편 「아버지의 여름」(문학사상), 「고동색 리본」(소설문학), 「소주와 개, 그리고」(식

- 생활) 발표. 두 번째 작품집 『黑猫日記』(創元社) 간행.
- 1986년 단편 「그날의 달빛은」(동서문학) 발표.
- 1987년 단편 「봉선화」(동서문학) 발표.
- 1988년 단편 「細花里에서」(문학정신) 발표.
- 1989년 단편 「어떤 피서」(현대문학) 발표.
- 1994년 단편 「旅路에서」(한국소설) 발표. 세 번째 작품집 『면山』(正宇社) 간행.
- 1996년 단편 「落照」(펜과 문학) 발표.